

韓國 古代裝身具의 研究

— 古代裝身具의 起源·系譜와 그 思想을 中心으로 —

李 殷 昌*

目 次

I. 序 言	IV. 履 靴
II. 冠 帽	V. 結 論
III. 腰 帶	

I. 序 言

韓國의 古代裝身具라 하면 先史時代, 三國時代, 南北國時代에 걸치는 古代의 裝身具를 망라한 것이다. 그리고 이들 裝身具는 人間의 身體의 上으로 부터 冠帽, 耳飾, 頸飾, 腰帶, 腕釧, 指環, 履靴, 足飾 등으로 裝飾한다.

그런데 이들 各 時代에 걸친 各種 裝身具의 全體를 들어 설명한다는 것은 한량이 없고 또 不可能하다. 그리하여 이에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韓國 古代社會에 가장 發展相을 보이고, 가장 그 資料가 많은 三國時代의 裝身具를 對象으로 삼고 그것도 裝身具로서 必要 不可缺하였던 基本的인 冠帽, 腰帶, 履靴 등에 대하여만 말하고자 한다. 이들 冠帽는 金冠, 腰帶는 胯帶와 腰佩, 履靴는 金銅履 등을 中心으로 그 源流, 起源, 系譜에 대하여 살피고 이들 裝身具가 지니고 있는 思想에 대하여도 言及하고자 한다.

II. 冠 帽

古代 韓國人의 冠帽는 折風帽, 鳥羽冠, 金冠 등을 愛用하였고 또 噴類, 巾類, 笠類 등을 着用하였다. 前者, 折風帽, 鳥羽冠, 金冠은 固有樣式으로서 이는 北方系로 非中國系이며 後者, 噴類, 巾類, 笠類는 外來樣式으로서 이는 韓族系로 中國系이다.

이들 諸 冠帽 가운데 金冠에 대하여 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이 金冠의 構造와 樣式, 源流와 起源, 系譜와 分布, 傳播와 思想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살펴 보기로 한다.

1. 金製寶冠(金銅冠)

* 대전보건전문대학 박물관과 교수

(1) 構造와 樣式

A. 百濟의 金冠

百濟의 金冠으로서 羅州 金銅冠이 그 唯一한 實例이고 그 構造와 樣式은 다음과 같다.

百濟 金銅冠: 전라남도 나주군 潘南面 新村里 제9호 고분에서 금동관이 출토되었다. 이 금동관은 內冠과 外冠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지금까지 이르고 있으나 이는 두 개의 冠帽가 복합식으로 형성된 것이다.

內冠이라 하는 것은 인당초문을 모조한 금동판 두장을 八자형으로 결합시키어 圓頂形의 弁形帽를 형성하였다. 또 外冠은 花文을 모조한 좁은 금동판 冠臺輪에 세 개의 立華飾을 입식하였다. 그 立華飾 세 줄기가 병립한 상단에는 寶珠 모양의 花形頭를 형성하여 꽃봉오리를 상징하고, 다시 양쪽으로 같은 寶珠 모양의 화형두를 형성한 꽃봉오리를 상징하는 화지가 斜出되었으며, 그 밑으로 화형두가 없는 화지가 斜線出 또는 水平出하여 좌우 대칭적인 미를 갖추었으며, 그 전체에 瓔珞을 장식하였다. 이 羅州 金銅冠의 內冠과 外冠은 모두 불교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外冠의 화지형의 立華飾은 후대 것인 松林寺 塔塔 속에서 발견된 樹木形立飾金具에 연결되어 주목되는데, 무녕왕릉에서 발견된 왕관 금제 관식과 왕비관 금제 관식의 立華飾이 초본형이라 하면 羅州 金銅冠의 立華飾은 木本型이라 하겠는데, 모두 그 起源은 韓國의 전통적인 관입화식의 계통이라 하겠다.

이 羅州 金銅冠의 內冠은 弁形折風帽에 속하는 것이고 外冠은 樹枝形金冠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內冠과 外冠은 그 構造와 樣式에 따르면 두개의 別個인 冠帽이다.

B. 新羅의 金冠과 伽耶의 金冠

신라와 가야의 금관의 양식을 구분하면 鳥羽形 立華飾 金冠·草花形 立華飾 金冠·樹枝形 立華飾 金冠으로 대별할 수 있다.

鳥羽形 立華飾 金冠: 前節에서 鳥羽를 삽식한 조우관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거니와, 여기는 그 조우관과는 달리 관대륜에 조우를 입식한 금관 양식을 말하는 것이다.

義城 塔里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이 있는데, 이 의성 금관은 金銅板으로 된 臺輪의 전면과 좌우 측면 세 곳에 입화식을 세웠다.

이 입화식은 金銅板을 양쪽으로 가늘게 오려서 그것을 하나하나 비틀었고, 그 先端은 B자형의 고리 모양으로 되어 있다. 이는 새깃(鳥羽)을 금속으로 譯出한 金鳥에 해당되니 곧 鳥羽形 立華飾 金冠의 한 예라 하겠다.

皇南洞 제98호 고분의 南墳에서 은관이 출토되었는데, 이 은관은 좁은 관대륜의 정면 중앙에 鳥翼形 입식을 삽식하고, 그 좌우 측면에 조우형 입화식을 상대하여 세웠다. 조우형 입화식은 圓弧形으로 구부러진 三角 銀板 바깥쪽을 가늘게 오려 그것을 하나하나 비틀었는데, 마치 새깃(鳥羽) 모양을 하였다. 이는 鳥翼形 立飾과 鳥羽形 立飾을 관대륜에 입식한 이른바 금관 양식을 갖춘 것으로 의성 탑리 고분 출토 금동관과 더불어 조우형 입화식 금관의 유일한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보면 의성 탐리 고분 출토 금동관과 제98호 고분 남분의 은제관은 그 형식은 금관 양식이지만 그 意匠에 있어서는 전절에서 기술한 바 있는 조우관의 그것과 같음을 알 수 있다.

草花形 立華飾 金冠: 금관은 앞에 말한 바와 같이 鳥羽形 立飾系 이외에 草本形式인 草花形 立飾系와 木本形式인 樹木形 立飾系가 있는데, 그 초화형 입식계인 초화형 입화식 금관에 대하여 다음에 기술하기로 한다. 이에 속하는 금관으로는 일본에 오구라(小倉)씨 소장품인 금관과 호암 미술관 소장품인 금관이 있다.

昌寧 출토로 전하는 金冠은 일본인 오구라(小倉)씨가 소장하고 있는 금관으로 역시 얇은 금관으로 만든 것인데, 좁은 관대륜의 정면 중앙에 寶珠形의 입화식이 입식되고, 좌우 측면에 초화형의 입화식이 상대적으로 입식되어 있다. 그리고 전체에 瓔珞 장식을 하고 있다.

高靈 출토 金冠으로는 호암 미술관 소장품인 금관이 있는데, 이는 고령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관대륜에 네 개의 초화형의 입화식을 같은 간격으로 입식하고 초화형 입식의 중앙 선단은 보주형으로 되었고, 가지는 3단을 이루며 좌우로 뻗었는데, 각각 끝을 하향하고 있으며 中段의 가지는 짧다. 금관 전체에 타출점선의 문양이 시문되고 영락으로 장식되어 있다.

이상 기술한 두 개의 금관은 전형적인 초화형 입화식 금관이다. 그런데 이 계통의 금관은 아직까지 가야지역에 한하여 존재하고 있어 가야 금관의 특색의 하나라고 보겠다. 그리고 이 초화형 입화식 금관은 수지형 입화식 금관보다 앞서는 것으로 추정된다. 앞에서 설명 기술한 조우관의 조우식은 수렵 생활을 하는 중에 새깃을 머리에 꽂기 시작하는 데서 그 기원이 비롯되었고, 그 원류는 북방계로 기술한 바 있다. 그런데 초화형 입식도 역시 수렵 생활을 하는 중에 흠이 지기 쉬운 머리를 가다듬기 위하여 머리띠를 매고 그리고 꽃가지(花枝)를 꽂아 머리를 장식하였을 것이니, 여기 머리띠는 금관의 冠臺輪이 되었을 것이고, 꽃가지는 금관의 초화형 입식이 되었을 것이라 하겠으니, 이는 금관의 기원의 내력이라고도 하겠다. 특히 南露 Alexandropol에서 발견된 銀製冠飾은 가야 지역의 초화형 입식 금관에서 볼 수 있는 꽃가지에 영락 장식을 한 초화형 입식의 계통임을 알 수 있으니, 곧 가야의 금관은 시베리아의 Skythai계 문화에 원류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樹木形 立華飾 金冠: 위에서 설명한 조우형 입화식 금관과 초화형 입화식 금관 이외에 수목형 입화식 금관이 있다. 신라와 가야의 금관에 있어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가장 화려 찬란한 유품이 이 유형에 해당되며, 특히 신라의 금관은 대체로 이 유형의 금관으로 되어 있다. 이들 금관이 모두 수목형 입화식계라 하고 있지만, 역시 수목형 입화식도 여러모로 변화되어서 이들 금관도 여러가지 양식으로 구분된다.

‘기 1예’로 경주 校洞의 고분에서 출토된 금관이 있다. 그 출토 경위가 도굴이었기 때문에 학술적인 면에서는 결여된 점도 없지 않아 있다. 이 역시 금관으로 만들었는데 좁은 冠臺輪에 樹木形 입화식 3개가 전면과 양 측면으로 立飾되어 있다.

입화식의 형태는 큰 本幹에 작은 가지가 對生 모습으로 사출하고 각각 가지의 先端은 보주형의

꽃봉오리로 처리되었다. 그리고 대륜과 입화식이 素文이지만 모두 영락 장식을 하고 있고, 특히 曲玉을 매달아야 할 위치인 꽃봉오리 부분과 가지가 뻗어나간 기부에 좀 큰 心葉形으로 된 영락을 가식하였다. 양질의 순금관의 제작품이지만, 모두 素文이며 수지형 입식 또한 사실적이며 그 전체의 소박한 조화미 등은 곧 古式에 속하는 금관이라 하겠다.

‘기 2예’로는 호암 미술관 소장 금동관 1개가 있다. 이 역시 출토지를 모르는 것이 유감이나 역시 좁은 관대륜에 出字 樹枝形의 입화식 3개가 정면과 양측면에 배치된 것이 특징이고, 양측으로 수식이 달려 있는데, 관대륜과 입식의 금관 周緣에 타출점선문이 보이고 입식에 19개의 영락을 정연하게 달았다. 아주 간결한 것이지만, 금관의 완전한 체모를 갖춘 것으로 역시 고식에 속하는 것이다.

이 유형은 出字 樹枝形의 입화식이라는 것이 주목된다. 앞에서 설명한 금동관(3단식 ‘出’자 수지형 입식 3개) 이외에 창녕 교동 제7호 고분 출토 금동관(3단식 ‘出’자 수지형 입식 3개), 達西 제37호 고분 출토 금동관(3단식 ‘出’자 수지형 입식 3개), 천마총 출토 금동관(3단식 ‘出’자 수지형 입식 3개), 금관총 출토 금동관(3단식 ‘出’자 수지형 입식 3개) 등과 이 밖에도 이러한 예는 많은 것 같다. 특히 부산 福泉洞 제1호 고분 출토 금동관 역시 앞의 유품과 같은 양식이나, 그 출자 수지형의 입화식 5개가 관대륜에 輪立한 모습이 특이한 점이다. 이들 금관은 신라 지역과 가야 지역에 모두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 달서 제37호 고분·천마총·금관총의 경우는 화려 찬란한 금관이 출토되었는데, 이중으로 상기 금동관이 출토되어 주목되며, 이 화려한 금관이 왕 또는 귀족의 大禮服 때에 착용하는 것이라 한다면 상기 금동관은 小禮服 때 또는 평상시에 착용하였을 가능성이 짙다.

‘기 3예’는 신라와 가야의 금관 중에서 가장 화려하고 찬란한 보관에 속하는 것들이다. 곧 관대륜에 出字 樹枝形 立飾 세 개가 전면과 양측면에 배치 입식되고 또 互生式 樹枝形 立飾 두 개가 후면에 배치 입식된 유형의 것이다. 이 유형은 다시 세 가지로 구분된다. 곧, 금령총 금관식·서봉총 금관식·금관총 금관식 등으로 분류된다.

첫째, 금령총 출토 금관은 ‘기 3예’의 양식에 해당되는 것으로, 내관 또는 내부 구조가 없는 것이며, 曲玉을 매달지 않고 영락만을 장식하였는데, 양측에 매단 수식이 아름답다. 이 금령총 금관식의 예로 천마총(天馬塚)에서 출토된 금관이 있다. 천마총 금관의 구조와 양식은 금령총 금관과 대체로 같으나, 다만 천마총 금관에 있어서는 곡옥을 매달아 장식한 것이 다를 뿐이다. 이 금령총 금관과 천마총 금관은 동일한 양식의 것으로 특히 출자 수지형 입식에 있어서 양자 공히 4단 구조인 것이 특색이라 하겠다.

둘째, 서봉총 금관식에 있어서 우선 瑞鳳塚에서 출토된 금관은 역시 ‘기 3예’에 해당되는 유형으로 전기 금령총과 천마총에서 출토된 금관과 같으나, 특히 출자 수지형 입식이 3단 구조로 되어 있어 평범하지만, 이 서봉총 금관의 구조에서 독특한 것은 상술한 외관 안에 帶狀 金板을 십자형으로 교차시키어 穹形狀의 圓帽를 구성하고 그 정상에 나뭇가지(樹枝)에 세 마리의 새가

얇은 모양의 神鳥 삽식이 있는 점이다.

세제, 금관총 금관식에 있어서는 금관총에서 출토된 금관과 같은 양식을 말한다. 금관총 출토 금관과 梁山 부부총 출토 금동관이 모두 관대륜에 출자 수지형 입식 3개가 전면과 양측면에 입식되고 互生 樹枝形 立飾 2개가 후면에 입식된 것은 ‘기 3예’의 양식에 속한다. 종전의 해석으로는 금제의 弁形帽에 鳥羽形을 삽식한 鳥羽冠을 내관으로 삼고 있다고 했는데, 이것이 곧 특징이라 하겠으나 최근에 와서는 반드시 그렇다고 단언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는 조우관을 말할 때에 논급한 바 있거니와, 조우관과 입화식 금관은 별개의 것으로 혹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이질적인 두 개의 관모가 복합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금관총 금관과 부부총 금동관이 내관과 외관으로 구성되었다는 종래의 생각은 재검토되어야 할 단계에 놓여 있다. 이들 금관은 내관과 외관을 분리하여서 생각되어야 하며, 외관은 내관에 부수되는 외관이 아니라 하나의 독립된 금관임을 재인식하여야 하겠다.

이에 皇南洞 제98호 고분 북분의 금관도 앞의 금관총 금관 계열의 양식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다. 이 제98호 고분 북분 금관은 관대륜과 입화식을 모두 打出 點線文으로 장식하고, 전면을 영락과 곡옥으로 장식하였는데, 특히 비취 곡옥을 출자 수지형 입식에는 16개씩(16개×3=48개), 호생 수지형 입식에는 9개씩(9개×2=18개), 관대륜에는 11개, 도합 77개를 매달았을 뿐만 아니라, 太環에 길고 짧은 아름다운 垂飾이 垂下飾된 이 금관의 독특한 점으로 보아 우리 나라 금제 보관 중에서 가장 화려 찬란한 至寶라 하겠다.

(2) 源流와 起源

금관은 과연 어떠한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떠한 때에 썼는지는 아직까지 구구한 학설로 그 정설이 없다. 그리고 금관이 실용적인 것인지 비실용적인 것인지에 대해 그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역시 정설이 없다. 그리하여 신라의 수목형 입화식 금관을 shaman의 관으로 해석하고 왕관이 아닌 祭儀의 最高位者의 관이라 한 바도 있다. 또는 금관의 금관이 약하여 비실용적인 것이어서 일상용의 冠이 아니라, 국왕의 예관 그리고 葬送의 보관으로 해석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으로는, 金冠이 출토되는 고분은 왕릉, 왕실·貴族들의 고분 등으로 추정되고 있으니 이 금관을 왕관으로 국한시키거나 샤아만 관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으며, 또 일상용의 冠帽, 의식용의 예관, 신앙상의 샤아만 관, 장송용의 寶冠, 그 어느 것으로 국한시킬 수도 없다. 이 금관은 수렵과 농경을 영위하는 동안에 머리를 동여매고 草本形의 草花, 木本形의 樹枝를 꽃은 극히 원시적인 방법에서 착안된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러한 기원에서 그 초화·수지는 샤아머니즘의 뜻을 지닌 것으로 그 기원 초에는 샤아만의 神草 또는 神樹의 실물이던 것이 후대에 이르러서 금속제의 관대륜과 입화식으로 譯出 轉換하기에 이르렀고, 이를 착용하기 위해 이 금관 안에 비단 또는 기타 재료로 금관을 받쳐 쓸 수 있는 장치가 별도로 마련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시간이 흐르는 동안 금관의 뜻도 변화하여 갔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신라 지역과 가야 지역에서는 군왕·왕실 또는 귀족의 관모로 애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군왕·왕실·귀족의 경축

또는 제사 등의 의식의 예관으로 착용하였을 것이고, 장송 때의 의식 보관으로도 부장하였을 것이다. 한편 祭政一致의 사회 체제의 부족 사회에서는 정치의 군왕이면서 제사를 주재하는 巫者가 왕실과 귀족들이었으니, 이들이 착용하는 금관은 바로 왕관으로서 착용되는 경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술적인 사아만관으로서도 착용되었을 것이다.

금관의 臺輪·立飾·垂飾 : 금관의 착용자와 착용의 경우가 상술한 바와 같고, 그 제작은 금은·옥으로 이룩된 화려 찬란한 보관이기는 하지만, 그 형태적인 내용이 아주 원시적이며 고식이라 하겠다.

다음은 금관의 관대륜과 입화식과 수식이 각각 지니고 있는 意匠을 살펴보고 이 금관의 각부의 구조, 형태, 양식에 따르는 그 원류와 기원을 살펴보기로 한다.

㉞ 冠臺輪 : 관대륜만으로도 독자적인 관이 되기도 한다. 페르시아와 그 밖의 제국에서는 臺輪式冠(diadem)의 왕관이 시행되었다고 한다. 한국 금관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일본의 天冠(寶冠)이라 이르는 江田村船山 고분 출토 廣帶形 금동관은 일직선의 底邊을 취하고, 上緣은 좌우에 山形을 이루었으며 전면에는 유려한 龜甲文을 시문하였고 또 영락으로 장식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관모의 체제를 갖춘 대륜식 관이라 하겠다. 그리고 또 일본의 宇田川村福岡 고분 출토 廣帶形 금동관 역시 전자와 같은 계통이다. 그런데 신라와 가야의 금관은 冠臺輪이 대체로 細帶形이고 입화식을 갖추고 있지만, 그 관대륜은 毛彫 기법의 화려한 문양으로 시문하고 영락 또는 곡옥으로 장식하였는데, 이러한 면은 고식 금관일수록 입식에 비하여 대륜에 장식 비중을 크게 둔 경향을 볼 수 있으니, 이는 대륜식 관의 意匠이며 또 대륜식 관의 존재를 짐작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예가 가야 지역에 많이 보이고 있으므로 일본의 細帶形의 관은 가야 양식계이며, 일본의 廣帶形과 細帶形의 소위 天冠은 그 원류가 가야 지역의 金冠系로 추정된다. 특히 茨城縣三昧塚 고분 출토 광대형 금동관은 화려한 각종 문양의 透彫飾에 瓔珞飾을 하여 대륜식 관에 주관을 두었으나 草花 立飾과 馬形 立飾이 첨가된 것은 전형적인 대륜과 입식이 겸전한 보관으로 이행하는 양상임을 알 수 있는데, 이것도 한국 금관 계열의 양식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廣帶形의 금관은 저 南露 노보철크르카아스크(Novocheerkaask)의 고분에서 발견된 廣帶形의 黃金 臺輪式冠(diadem)의 유형에 원류하는 것으로 시베리아로부터 전래하여 한반도를 거쳐 日本에 건너가 자리잡은 것이라 하겠다.

㉟ 立華飾 : 그런데 수목형 입화식 금관은 관대륜과 입화식이 그 意匠의 置重度에 있어 서로 같은 비중이거나 또는 입화식에 더 비중을 경주한 것이 많다. 그리고 보면 이 수목형 입화식 금관은 곧 臺輪式冠(diadem)과 花冠(corona)의 양 성격으로 된 의장을 완전히 갖추었다. 그리하여 수목형 입화식 금관은 ㉠ 그 입화식이 ‘出’자형의 對生式 樹枝形 立華飾과 波狀形의 互生式 樹枝形 立華飾 등은 금속으로 역출한 수지형이라 하겠고, ㉡ 이들 수목형 입화식의 선단의 寶珠形은 불교 미술 양식의 보주형이라고도 하겠지만, 이는 식물의 꽃봉오리(蕾)로 보이며, ㉢ 이에 매단 영락 장식은 마치 나뭇잎(木葉)과 같이 생각되며, ㉣ 또한 곡옥을 매단 장식은

마치 나무열매(木實)와 같이 생각되며, ㉔ 그리고 금관의 양측에 매단 수식은 금속을 역출한 蔓草形垂飾으로 생각된다. 이렇게 고찰되는 수목형 입화식 금관은 수지·화지·만초 등 식물성의 의장이라 생각된다.

첫째, 出자형의 대생식 수지형 입화식은 문자 그대로 木本式의 수지형임을 재인식케 한다. 이는 곧 ‘식물에 있어서 잎이 나는 순서를 보면 對生(opposite)으로 派生하는 형식과 같은 樹枝다’라고 하겠다.

둘째, 波狀形의 호생식 수지형 입화식은 수목형 입화식이다. 다시 말하면 금관 후측의 파상형으로 만곡을 보이는 立飾은 전자와 같이 식물의 葉序에 따르는 互生(alternate)의 樹枝形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木本系의 樹林式 樹枝形 금관은 그 사상적으로는 시베리아의 ‘生命의 나무(樹)’ 곧 ‘宇宙의 나무(樹)’에 그 源流를 구해야 할 것으로 北方系 文化에 속하는 것이다. 그리고 樣式上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의 시바리간 티라테페(黃金塚)에서 출토된 樹枝形 立飾 黃金 寶冠에 그 원류를 구해야 할 것으로 중앙아시아 문화의 系譜에 해당하는 것이다.

한편 앞의 樹枝形 立飾 金冠과는 다른 형식과 정취를 보이는 草花形 立飾 金冠이 있다. 高靈 출토 草花形 立飾 金冠(湖岩 美術館 소장), 洛東江 유역 출토 초화형 입식금관(小倉武之助 소장), 경상남도 출토 唐草 文形 立飾 金銅冠(小倉武之助 소장) 등 유품이 있다. 이들 금관 또는 금동관은 伽耶의 보관으로 冠臺輪에 좌우대칭적인 唐草 文의 草花形 立飾 金冠은 저 일본의 후지노기(藤ノ木) 고분에서 출토된 당초문의 초화형 입식 금동관을 비롯한 이들 양식계의 제 금동관의 원류가 될 것이다.

이와같은 앞에 예거한 당초문의 초화형 입식계의 금관은 南露 Alexandropol에서 발견된 銀製 草花形 冠飾에 관련지워 Skythai 문화에 그 원류를 구할 것으로 역시 한반도 가야를 거쳐 일본에 동류하여 정착한 것으로 추정된다.

㉕垂飾: 금관에는 전면 양측에 垂飾이 달린 것이 많다. 특히 梁山 부부총 금관, 제98호 고분의 南墳 금관, 천마총 금관, 금령총 금관, 서봉총 금관, 금관총 금관 등은 화려한 수식이 달려 있다. 이는 금관을 장식하는 수식이라고도 하겠으나 실상 그 수식은 장식을 주목적으로 한 데서 기원한 것이 아니라, 관모를 착용할 때 그 안전을 기하기 위하여 턱밑에 結縛하는 관모의 끈(纓)을 다는 데서 발달한 것으로도 해석된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보면 개마총의 질풍모, 쌍영총의 조우관, 또 개마총의 금속제 조우관에 보이는 布纓이 있고, 梁職貢圖의 百濟 國史의 은화식 관의 布纓, 신라 금령총 출토 기마 인물상 토기 ‘기 1’의 鐵製 弁形 戰帽로 추정되는 것에도 冠纓이 보인다. 이와 같이 삼국 사회의 관모에 冠纓이 있는 것과 같이 신라와 가야의 금관에 보이는 수식이 장식의 목적도 있겠지만, 관영의 의장이 더욱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이들 수식은 금실로 끈 줄에 영락을 장식하고 그 끝에 곡옥을 달기도 하고 鋒形飾을 매달기도 하였는데, 이 수식의 모습은 마치 蔓草形을 하고 있고 이들 葉序는 輪生式을 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들 垂飾이 조성된 樣式의 源流는 시베리아의 황금펜던트 등 스키타이문화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이들 金屬工藝術이 신라에 전래되어 특이한 발달을 하였다. 이 수식금속공예는 시베리아 중앙아세아에서는 ‘펜던트’로서 성행 발전하였고 신라에서는 黃金寶冠의 垂飾으로 발전하였는데 특히 皇南大塚 北墳의 黃金寶冠의 좌우에 각각 3줄씩의 수식이 있어서 마침내 ‘펜던트’를 방불케 하고 있다.

(3) 系譜와 分布

金製寶冠은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韓國과 日本에 분포되었다. 이들 金製寶冠은 臺輪의 형태와 立飾의 양식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I. 樹枝形立飾系金冠

(1) 樹枝形立飾系金冠 A型…對生式樹枝形立飾金冠

- ① 校洞金冠(新羅) : 慶州 校洞古墳 出土
- ② 福泉洞金冠(伽耶) : 釜山市 東萊區 福泉洞 11號墳 出土
- ③ 伽岩洞金冠(伽耶) : 慶尙北道 星州郡 碧珍面 伽岩洞古墳 出土

(2) 樹枝形立飾系金冠 B型…出字式樹枝形立飾金冠

- ① 壺杆塚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壺杆塚 出土
- ② 金冠塚金銅冠(其 1)(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金冠塚 出土
- ③ 金冠塚金銅冠(其 2)(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金冠塚 出土
- ④ 皇南大塚南墳金銅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皇南大塚(98號墳) 南墳 出土
- ⑤ 皇吾洞古墳北槨金銅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皇吾洞古墳 出土
- ⑥ 湖岩美術館藏金銅冠(新羅) : 傳 慶州地方 出土(未詳)
- ⑦ 小倉氏藏金銅冠(新羅) : 傳 慶州地方 出土(未詳)
- ⑧ 大邱飛山洞37號墳金銅冠(其 1)(伽耶) : 大邱市 飛山洞(達西) 37號墳 出土
- ⑨ 大邱內唐洞55號墳金銅冠(伽耶) : 大邱市 內唐洞(達西) 55號墳 出土
- ⑩ 昌寧校洞7號墳金銅冠(伽耶) : 慶尙南道 昌寧郡 昌寧邑 7號墳 出土
- ⑪ 福泉洞1號墳金銅冠(伽耶) : 釜山市 東萊區 福泉洞 第1號墳 出土
- ⑫ 林堂洞金銅冠(伽耶) : 慶尙北道 慶山郡 慶山邑 林堂洞古墳 出土
- ⑬ 二子山古墳金銅冠(日本) : 日本 群馬縣 二子山古墳 出土

(3) 樹枝形立飾系金冠 C型…出字式樹枝形立飾及互生式樹枝形立飾金冠

- ① 皇南大塚北墳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皇南大塚(98號墳) 北墳 出土
- ② 天馬塚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天馬塚(155號墳) 出土
- ③ 金鈴塚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金鈴塚 出土
- ④ 瑞鳳塚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瑞鳳塚 出土
- ⑤ 金冠塚金冠(新羅) : 慶尙北道 慶州市 金冠塚 出土

- ⑥ 伊東氏藏金銅冠(新羅)：傳 慶州地方 出土
- ⑦ 梁山夫婦塚金銅冠(伽耶)：慶尙南道 梁山郡 北亭里 夫婦塚 出土
- ⑧ 大邱飛山洞37號墳金銅冠(其 2)(伽耶)：大邱市 飛山洞(達西) 37號墳 出土
- ⑨ 小倉氏藏金銅冠(伽耶)：傳 慶尙南道 蔚山地方 出土
- (4) 樹枝形立飾系金冠 D型…對稱式樹枝形立飾金冠
 - ① 羅州金銅冠(百濟)…全羅南道 羅州郡 潘南面 新村里 9號墳 出土

II. 草花形立飾系金冠

- (1) 草花形立飾系金冠 A型…對生外反式草花形立飾金冠
 - ① 湖岩美術館藏金冠(伽耶)：傳 高靈 出土
 - ② 池山洞金銅冠(伽耶)：慶尙北道 高靈郡 高靈邑 池山洞 1號石室墳 出土
- (2) 草花形立飾系金冠 B型…唐草式草花形立飾金冠
 - ① 銀鈴塚金銅冠(新羅)：慶尙北道 慶州市 銀鈴塚 出土
 - ② 普門洞夫婦塚金銅冠(新羅)：慶尙北道 慶州市 普門洞 夫婦塚 出土
 - ③ 小倉氏藏金冠(伽耶)：傳 慶尙北道 出土
 - ④ 鴨稻荷山古墳金銅冠(日本)：日本 滋賀縣 高島郡 鴨稻荷山古墳 出土
 - ⑤ 島田塚古墳金銅冠(日本)：日本 佐賀縣 唐津市 島田塚古墳 出土
- (3) 草花形立飾系金冠 C型…：唐草蓮花式草花形立飾金冠
 - ① 小倉氏藏金銅冠(伽耶)…傳 慶尙南道 出土

III. 草花形立飾及動物像立飾系金冠

- (1) 草花形立飾及動物形立飾系金冠 A型…草花形立飾及馬形立飾金冠
 - ① 三昧塚金銅冠(廣帶形冠)(日本)：日本 茨城縣 三昧塚古墳 出土

IV. 前立飾系金冠

- (1) 前立飾系金冠 A型…寶珠形前立飾金冠
 - ① 船山古墳金銅冠(日本)：日本 熊本縣 船山古墳 出土
- (2) 前立飾系金冠 B型…三寶珠形前立飾金冠
 - ① 池山洞32號墳金銅冠(伽耶)：慶尙北道 高靈郡 池山洞 32號墳 出土
 - ② 小倉氏藏金銅冠片(伽耶)：傳 慶尙南道 出土
 - ③ 三本松山古墳鍍銀銅冠(日本)：日本 福井縣 吉田郡 二本松山古墳 出土
- (3) 前立飾系金冠 C型…手指形前立飾金冠
 - ① 二本松古墳金銅冠(日本)：日本 福井縣 吉田郡 二本松山古墳 出土

V. 廣帶形系金冠

- (1) 廣帶形系金冠 A型…純粹廣帶形金冠
 - ① 船山古墳金銅冠(日本)：日本 熊本縣 船山古墳 出土

(2) 廣帶形系金冠 B型…立飾廣帶形金冠

① 前記 三昧塚金銅冠(廣帶形冠)(日本)：日本 茨城縣 三昧塚古墳 出土

이상 열거한 金冠類는 新羅地域을 위시하여 伽耶地域과 百濟地域 南部와 日本地域에 걸쳐 분포되었으니, 곧 錦江流域 이남인 韓半島 南部地域과 日本을 포함한 金冠文化圈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금관은 新羅가 그 본거지로 新羅地域에서 質的으로 우수한 금관과 量的으로 수다한 金冠의 유례를 볼 수 있고, 新羅地域과 伽耶地域에 각종 金冠類가 집중 분포되었다. 그 다음은 日本에 약간의 金冠類가 분포되고 百濟地域은 그 금관류 분포가 희소하다. 그리고 보면 일본의 金冠은 新羅와 伽耶의 金冠의 影響을 받았다.

이들 金冠類는 臺輪의 형태로 구분한다면 細帶形金冠과 廣帶形金冠으로 二大別할 수 있는데, 이 細帶形金冠은 앞의 表와 같이 다종 다양하고 廣帶形金冠은 역시 앞의 表와 같이 純粹廣帶形金冠과 立飾廣帶形金冠으로 세분할 수 있다. 그리고 立飾의 양식에 따라 구분하면 앞의 表와 같이 樹枝形立飾系金冠·草花形立飾系金冠·草花形立飾及動物像立飾系金冠·前立飾系金冠 등으로 그 유형을 유별할 수 있고, 또 樹枝形立飾系金冠은 A型·B型·C型·D型으로 세분되고 草花形立飾系金冠은 A型·B型·C型으로 세분되며 草花形立飾及動物像立飾系金冠은 A型으로 단일하며 前立飾系金冠은 A型·B型·C型으로 세분되어 그 다양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韓半島의 南部와 日本에 분포되어 다양한 유형으로 발달한 韓國金冠美術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시베리아 北方系文化의 系譜에 속하며 그 源流는 中央亞細亞地域의 金冠이라 하겠다.

(4) 思想과 信仰

金冠은 新羅地域, 伽耶地域, 日本 各 地域으로 傳播하면서 分布되었는데 그 構造와 樣式에 있어서 共通的인 系譜를 지니었지만 또한 각각 地域的인 特色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金冠이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에 있어서 역시 공통적인 경향을 지키고 한편 각각 지역적인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A. 新羅金冠에 보이는 思想과 信仰

가. 木本式系 樹木形立華飾이 지니고 있는 神木信仰

新羅의 金冠은 出字形의 對生式 樹枝形立飾과 互生式 樹枝形立飾을 冠帶輪에 세워 마치 樹木을 形成하고 있음을 原則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樣式의 金冠과 金銅冠은 慶州를 中心으로 한 附近의 新羅文化地域과 洛東江以東의 伽耶文化地域에 分布되고 있다. 특히 그 典型的인 것은 新羅의 古都인 慶州의 古墳 出土의 金冠이다. 이들 金冠은 細帶形冠帶輪의 앞으로는 出字形의 帶生式樹枝形立飾 셋을 세우고 뒤로는 互生式樹枝形立飾 둘을 세우고 그 樹枝에는 마치 잎을 방불케 하는 瓔珞과 열매를 연상케 하는 曲玉으로 裝飾하여 마침내 茂盛한 叢林을 形成하고 있어서 이는 新羅의 始祖神話의 赫居世 誕生地인 「楊山麓 蘿井傍林間」이나 金氏王室의 始祖神話의 金闕智

誕生地인 「金城西始 林樹間」의 樹林을 翻案한 것으로 곧 新羅神話의 聖地인 樹林의 神木信仰과 樹林信仰의 思想과 더불어 發展한 것이라 하겠다.

다시 말하면 新羅 金冠의 樹枝形立華飾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中央亞細亞의 北方系文化로서 역시 그 곳의 金製寶冠의 樹枝形立飾을 받아들인 樹枝形立飾의 形式上的 造型的인 樹枝形態와 또 그 樹枝形立飾의 內容上的 思想的인 神木信仰이 並行 發展하였다. 이와 같은 古墳時代의 新羅 金冠의 樹枝形立華飾은 韓國社會에 이미 오래 前에 역시 中央亞細亞의 北方文化로서 전래되어 자리잡은 神木信仰과 樹林信仰과 더불어 合流하여 繼承하였다. 그리하여 檀君神話에 보이는 神市の 神檀樹, 馬韓 小國의 別邑의 蘇塗(숫대), 新羅神話의 赫居世 誕生聖地인 蘿井傍의 樹林과 金闕智 誕生聖地인 鷄林의 樹林등의 系譜에 따르는 樹林信仰의 表現이라 하겠다.

나. 瑞鳳塚金冠의 鳥形飾이 지니고 있는 天鳥信仰

서봉총 금관에 대하여는 앞의 金冠 유례의 수목형 입화식 금관의 ‘기 3예’ 둘째번에서 기술한 바 있다. 서봉총 금관 외형은 전술한 바와 같이 다른 금관과 다름없는 구조와 양식을 하고 있지만, 특히 이체를 띠고 주목되는 바는 內形에 있다. 이에 대하여도 이미 설명된 바와 같이 帶狀金板을 十자형으로 交叉시키어서 穹形狀의 圓帽를 형성하고, 十자로 교차된 정상에 세 가지로 분립된 樹枝形(혹은 鹿角形)을 꽃고 그 가지마다 한 마리씩 도합 세 마리의 金鳥가 앉아 있다. 여기 문제 삼고자 하는 것이 곧 이 조형식에 대한 문제이다. 이 조형식에 대하여는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그것은 세 마리의 금새와 또 이들새가 앉은 圓形帽로 구분하여 말할 수 있다. 첫째 금새로 된 조형식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이 금새는 지금까지 鳳凰으로 생각하여 왔다. 서봉총이라는 명칭은 瑞典의 皇太子 구스타프 아돌프(Gwstav Adolf)가 온 기회에 발굴하였기 때문에 瑞典의 瑞자와 금관 鳳凰의 鳳자를 취하여 瑞鳳塚이라고 한 것은 이미 아는 사실이고, 금관의 金鳥는 鳳凰으로 생각하여 왔다. 그리하여 瑞鳳塚 금관의 봉황을 고구려 고분 벽화에 보이는 三足鳥(太陽神) 또는 鳳凰(四靈動物)과 관련을 지워 天鳥 思想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된 바도 있다. 그러나 三足鳥나 봉황이 전형적인 중국의 天鳥 思想인데 비하여 서봉총 금관은 순수한 한국재래의 통속적인 崇鳥 思想 내지는 鳥類 信仰에서 온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하여 요즘 와서는 서봉총의 鳥形飾은 한국 조류 신앙의 숫대(蘇塗)의 신앙과 관계되며, 그것이 시베리아 제 민족의 조류 숭배의 샤아만으로서 원시 신앙의 원류가 됨이 논급되어 오고 있다. 필자 또한 大田市 槐亭洞의 石槨墓에서 출토된 청동기 가운데 楯形 金具·劍把形 金具·圓形 金具 등 異形 靑銅器가 《三國志》馬韓條에 보이는 “큰 나무를 세우고 방울과 북을 달았다(立大木懸鈴鼓)”는 숫대 신앙과 관련되는 것이라 보고한 바 있고, 또 이어 괴정동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農耕文 靑銅器가 발견됨으로 해서 그 나뭇가지에 새가 앉은 樹枝形 鳥形文이 경주 출토로 전하는 雙鳥 竿頭飾과 더불어 숫대에 따르는 문헌자료·고고 자료·현존 숫대 등과 일치가 되며, 그것이 우리 나라 선사 시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토속적이고 고유한 숫대 신앙, 곧 조류 신앙임을 말한 바 있다. 그리고 皇南洞 C지구 제4호 고분에서 출토된 象嵌

瑠璃 丸玉의 인물상 두부에 금새가 장식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그것이 서봉총 금관의 금새와 양식 또는 의장에 있어 일련의 관계가 있음을 상술한 바의 솟대 신앙, 곧 조류 신앙인 전통 문화의 한 계통임을 말한 바 있다. 이렇듯 서봉총 금관의 鳥形飾은 상술한 바의 농경문 청동기의 樹枝 鳥形文과 雙鳥 竿頭飾과 象嵌 瑠璃 丸玉의 인물상 金鳥飾 등과는 하나의 계통을 이룬 솟대 신앙, 곧 조류 신앙으로서 그것이 시베리아 凍土地帶의 鳥形 木像과 역시 시베리아 제 민족의 生命의 나무, 世界의 나무와 그 형태·의장·사상 등으로 관련되는 것으로, 곧 시베리아 제 민족의 샤아머니즘으로서의 원시 신앙에 원류하고 있음을 재강조하는 바이다. 둘째, 서봉총 금관의 내부 구조를 十자형으로 交叉시킨 穹形을 이룬 이른바 圓形帽과 그 十자형의 교차점에 세운 鳥形飾으로 형성된 양식과 그 의장만으로도 충분한 독립된 하나의 관모라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조형식의 금새를 제외한 金板 立飾(三枝形)만은 그 형태에 있어서 對生式 樹枝形도 아니고, 또 互生式 樹枝形도 아니며, 이는 한쪽 방향으로 가지가 뻗어 났고 그 곡선을 지운 모습은 마치 鹿角을 模作한 양식이다. 이 鹿角形의 金板 立飾 끝에 금새 세 마리를 가식하여, 상술한 바와 같은 圓形帽 정상에 이른바 조형식을 입식한 서봉총 금관의 내부의 구조는 앞에 말한 바와 같은 하나의 독립된 관모의 형태를 갖춘 것으로, 곧 예니세이 출토 샤아만 관의 대륜에 十자형으로 교차시키어 궁형을 이룬 원형모 정상 중앙에 녹각을 입식해 놓은 구조 및 의장과 상통되는 것이다. 서봉총 금관 내부의 조형식 원형모는 상기 샤아만 관과 같이 토속적이며 고유한 동물 신앙의 뜻을 지닌 것으로, 그 원류는 역시 시베리아 제 민족의 샤아머니즘으로서의 동물 숭배 숭조 사상, 곧 원시 신앙에 있다고 생각된다. 그리하여 서봉총 금관은 신라의 토속적인 관모로서 그 외부의 出자형의 대생식 수지형 입화식, 파상형의 호생식 수지형 입화식은 물론 그 내부의 조형식과 원형모 등도 모두 시베리아 제 민족의 원시 신앙과 그들의 관모 양식이 그 원류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 曲玉이 지니고 있는 呪術的인 思想

曲玉의 起源段階의 新石器時代로부터 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를 거치며 주로 이 曲玉이 頸飾의 垂寶物로 利用되고 있었다. 이로부터 新羅의 金冠의 樹枝形立華飾에 裝飾한 懸垂物로 이용되기까지의 造型的인 發達過程과 思想的인 移行系譜를 살필 수 있다.

前者, 曲玉의 造型的인 發達過程은 原始的의 曲玉(新石器時代)→始原型的의 曲玉(祖型的의 曲玉·青銅器時代—初期鐵器時代)→典型的의 曲玉(古式曲玉·原三國時代)→全盛型的의 曲玉(新型曲玉·三國時代)에로 移行發展하였다.

後者, 曲玉의 思想的인 移行系譜는 그 曲玉이 지니고 있는 呪術的인 思想을 생각할 수 있으니 ①新石器時代의 原始的인 曲玉은 狩獵漁撈生活에 關係를 맺고 있었다. 그러나, ②青銅器時代와 初期鐵器時代의 始原型的인 祖型에 속하는 曲玉 段階에 이르러서는 農耕生産生活과 關係를 맺고 있었다. 이들 曲玉은 多紐鏡과 細形銅劍 등과 셋트로 出土되어 이에 따르는 思想과 信仰이 있었으니 곧 이는 曲玉에 대한 思想과 信仰으로 傳統的인 固有的인 思想과 信仰이 되었다. 이것

이 ③原三國時代의 典型的인 古式에 속하는 曲玉으로 進展하고 三國時代의 全盛型的인 新型에 속하는 曲玉으로 발전하며 그 時代의인 樣相을 보이면서 移行系譜의 思想과 信仰이 繼承되었다.

①曲玉·多紐鏡·細形銅劍 등 셋트와 그 思想

曲玉의 始源型的인 祖型에 속하는 曲玉 段階에 있어서 이들 曲玉은 天河石製가 主流를 이루며 頸飾의 垂寶物로 利用되었는데 이 曲玉은 주로 多紐鏡과 細形銅劍 등과 더불어 셋트로 伴出하고 있어서 이들은 相互 關係가 깊은 思想과 信仰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曲玉은 靈性이 높은 呪術의 珍器觀이 강한 表現의 寶玉이었다. 둘째, 多紐鏡은 圓形體로서 대체로 同心圓文을 施文하여 마침내 太陽을 意味하는 天神信仰을 象徵하는 神鏡이다. 셋째, 細形銅劍은 神聖한 神威를 象徵하는 靈劍이었다. 그리고 別途로 銅鐸·雙頭鈴·組合式雙頭鈴·鬘形銅鈴·竿頭鈴·異形銅鈴·五鈴具·八珠鈴 등 巫俗信仰의 鈴具類를 同伴하고 있고 또 農耕文青銅器와 같은 蘇塗信仰의 儀典具를 同伴하고 있다. 이와같이 曲玉은 神鏡(多紐鏡)·靈劍(細形銅劍)·祭祀器(鈴具類)·儀典具(青銅儀器) 등과 信仰上으로 密接한 關係를 맺고 있는 寶玉이다. 그리고 이들 曲玉·多紐鏡·細形銅劍 등의 셋트는 그 思想과 信仰 등과 더불어 日本에 傳受되어 彼地의 三種의 神器로 崇尚하고 있다.

그리고 天河石製 曲玉은 『三國志』 韓傳에 보이는 蘇塗信仰과 깊은 關係를 맺고 있다. 첫째, 曲玉은 神靈視되어 農耕社會의 祭祀長(蘇塗信仰의 天君)의 身體에 매달는 呪術의 寶玉(頸飾)이었을 것이다. 한편 둘째, 曲玉은 神體視되어 農耕社會의 祭祀場(蘇塗信仰의 別邑)의 神壇에 세우는 神木의 寶玉(懸垂品)이었을 것이다. 이 曲玉을 懸垂品으로 매달은 神木은 저 『日本書紀』에 보이는 八坂瓊曲玉을 장식하는 眞坂樹의 類例의 源流이고 또한 新羅의 金冠의 曲玉을 매달은 樹枝形立飾의 先例라 하겠다.

②天河石製 始源型的인 祖型에 속하는 曲玉과 翡翠製 全盛型的인 新型에 속하는 曲玉

曲玉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그 造形上의 發展을 하는 동안 역시 材料上의 變化도 있었다. 原始的인 曲玉(新石器時代)은 自然物을 그대로 사용하는 例가 많고 始源型的인 祖型(青銅器時代·初期鐵器時代)에 속하는 曲玉은 天河石製가 그 主流이었다. 그리고 典型的인 古式(原三國時代)에 속하는 曲玉에 이르러서는 天河石製는 소멸되어가고 陶土·石材·유리·水晶 등 材料로 代替되어가다가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도 역시 瑪瑙·金屬 등 材料를 追加 利用하였다.

그리고 三國時代 A.D. 4世紀頃 부터 A.D. 6世紀頃까지는 曲玉의 全盛型期로서 그 曲玉의 材料는 翡翠가 選擇되어 硬玉製曲玉이 主流를 이루고 있다. 또 曲玉의 利用에 있어서도 腕釧의 修飾品, 頸飾·耳飾·腰佩·垂飾 등의 垂寶物, 金冠·樹枝形立華飾의 懸垂品으로 多樣한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에 論及하고자 하는 것은 曲玉을 懸垂品으로 매달은 新羅金冠의 樹枝形立華飾에 대하여서다. 이렇게 翡翠 곧 硬玉製曲玉을 장식한 樹枝形立華飾金冠의 例로는 皇南大塚北墳金冠, 天馬塚金冠,

瑞鳳塚金冠, 金冠塚金冠의 例가 있다. 이들 新羅金冠의 樹枝形立華飾은 對生式(出字形) 樹枝形 3개와 互生式(交互形) 樹枝形 2개로 된 5개의 樹枝形立華飾에 多數의 翡翠曲玉이 規則的으로 整然하게 裝飾되어 있다. 이에 樹枝形立華飾의 自體로서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의 狀態와 또 懸垂品인 翡翠曲玉의 自體로서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의 樣相으로 兩分하여 살필 수 있다.

첫째, 曲玉을 달아맨 樹枝形立華飾의 自體로서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의 狀態를 살펴보기로 한다. 이 新羅金冠의 曲玉을 매달은 樹枝形立華飾은 샤먼冠의 神木信仰으로서 先新羅文化인 農耕社會의 祭祀場의 神壇에 세운 曲玉을 매달은 神木의 可能性과 더불어 그 思想과 信仰을 繼承한 것이라 하겠다. 또 그것은 시베리아의 「生命의 樹」와 「宇寅의 樹」 곧 北方文化要素인 神木信仰의 系譜라 하겠다.

둘째, 樹枝形立華飾에 매달은 懸垂品인 翡翠曲玉의 自體가 지니고 있는 그 思想과 信仰의 樣相을 살펴 보기로 한다. 曲玉은 主로 始源型的인 祖型에 속하는 段階로부터 天河石製를 主流로 삼고 있었다. 이 天河石은 白色素地에 綠色의 斑點을 한 아름다운 綠色의 寶石인데 曲玉의 원래의 色은 이 綠色이고 이 綠色의 曲玉은 가을(秋)과 겨울(冬)의 枯死의 色이 아니라 봄(春)과 여름(夏)의 生生한 自然界의 生命의 色이다. 그리고 新羅金冠의 樹枝形立華飾에 장식된 翡翠曲玉은 從前의 天河石製의 綠色曲玉의 姿態가 소멸되어 자취를 감춘 뒤에 원래의 基本的인 綠色曲玉을 追求한 나머지 神秘로운 曲玉 本然의 綠色을 翡翠 곧 硬玉製曲玉으로 求得하였다. 다시 말하면 翡翠曲玉의 綠色으로서 本來의 天河石製曲玉의 秘色 곧 綠色으로 復古한 것이라 하겠다. 이 天河石製 曲玉의 綠色이나 翡翠製 曲玉의 綠色은 韓國曲玉의 傳統的인 秘色으로 自然界의 生生한 生命의 綠色의 그 思想과 信仰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 硬玉製曲玉을 選擇한 것은 翡翠 自體에 대한 思想的 또는 信仰的인 關係가 있다. ①翡翠가 神靈視 또는 神聖視되어 寶玉으로서 權威性이 있고 또, ②翡翠는 不老長壽의 無際限의 威力, 神仙神人의 超人間的 能力을 가질 수 있는 呪術的인 護符性이 있어서 韓國 원래의 曲玉인 天河石의 石質과 色調 등과 그에 대한 思想上 또는 信仰上으로 一致되는 翡翠가 選定되어 重要視되고 그 主流를 이루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이 翡翠曲玉을 所持하는 者는 古代社會에 있어서 ①集團內的 權威를 가진 者, ②呪術的인 能力을 지닌 者, ③靈力을 利用할 수 있는 者 등으로 그 呪符를 保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B. 伽耶金冠에 나타난 思想과 信仰

金冠의 樣式別 分布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新羅金冠系라 할 수 있는 木本形式의 樹枝形立華飾金冠이 洛東江 以東地域에 分布되고 있는데 대하여 伽耶金冠系라 할 수 있는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金冠이 洛東江 以西地域에 分布되고 있다.

이 伽耶金冠界는 그 構造와 樣式으로는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金冠으로서 洛東江 以東地域의 新羅金冠界인 木本形式의 樹枝形立華飾金冠과 다르다. 그러나 이들 金冠의 思想과 信仰에 있어서는 그 木本形式의 樹枝形立華飾 新羅系 金冠이나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 伽耶系金冠이

兩者 모두 共通的으로 같다. 그리하여 이 伽耶金冠이 지니고 있는 思想과 그 信仰은 ①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의 自體로서의 思想과 信仰 곧 神木信仰이었음을 알 수 있고 그것은 木草形式의 樹枝形立華飾의 神木信仰과 같다. 또, ②이들 伽耶金冠의 草花形立華飾에는 船形飾이 첨가된 類例도 있어서 이 船形飾이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 곧 太陽船信仰이 깃들여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이 지니고 있는 神木信仰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으로 된 伽耶金冠은 그 草花形을 唐草狀으로 透彫한 것이다. 이는 곧 唐草狀의 透彫를 基本으로 한 草花形立華飾의 系統이라 하겠다. 이러한 類例로는 傳高靈 出土 金冠(湖岩美術館 所藏)과 傳慶尙南道 出土 金冠(小倉菟集品) 등이 그 代表가 되는 遺品이다. 이는 透彫 唐草狀으로 圖案한 草本形式의 草花形立華飾系의 伽耶金冠이다. 그리고 이러한 樣式系列의 類例는 그 源流를 南露의 알렉산드로폴(Alexandropol)에서 出土된 銀製草花形立華飾 冠과 같은 스키타이系文化에서 求해야 할 것이다.

伽耶金冠은 造形上으로는 新羅金冠의 出字形 또는 交互形의 木本形式인 樹枝形立華飾과는 달리 唐草狀의 草本形式인 草花形立華飾을 하고 있지만 그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은 앞에서 말한 新羅金冠과 더불어 北方系文化인 「生命의 나무」 「世界의 나무」 등과 같은 神木信仰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 神木信仰은 역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檀君神話의 神市의 神檀樹信仰, 『三國志』 韓傳의 馬韓諸國 別邑의 蘇塗信仰, 新羅의 赫居世神話의 蘿井傍林間이나 金闕智神話의 鷄林의 樹林 등의 神木信仰의 系譜이었음을 알 수 있다.

나. 船形飾이 지니고 있는 太陽船 信仰

伽耶金冠에는 唐草狀의 草本形式인 草花形立華飾의 頂上에 船形飾을 장식한 類例가 있다. 洛東江 流域에서 出土된 伽耶金銅冠(小倉菟集品)이 있는데 唐草狀 透彫의 草花形立華飾이고 또 그 頂上에 船形飾을 장식하였다. 그리하여 이 伽耶金銅冠은 神木信仰과 太陽船信仰이 複合形成되고 있다.

前者, 唐草狀의 草本形式인 草花形立華飾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新羅 金冠의 草本形式의 樹枝形立華飾의 경우와 더불어 北方界의 神木信仰의 表現이라 하겠다.

後者, 船形飾은 唐草狀의 草本形式인 草花形立華飾의 頂上에 透彫로써 船形飾을 立飾한 것인데 이 船形飾은 死者의 靈魂을 天界에 運搬하기 위한 太陽船思想과 그 太陽船信仰으로 表現된 것이라 하겠다.

한편 伽耶地域에는 船形土器를 供獻土器로서 副葬하는 例가 많으니 이 船形土器의 副葬도 역시 太陽船思想과 太陽船信仰의 例로 보인다. 그리하여 伽耶의 金銅冠의 船形飾과 古墳에 副葬되는 船形土器는 兩者 모두 伽耶地域의 太陽船思想으로서 곧 太陽船信仰이라 하겠다. 이밖에 伽耶地域에는 古墳에 鳥形을 한 鴨形土器와 鳥形飾을 한 船形土器 등을 供獻土器로 副葬하는 例가

있다. 이와같은 鳥形의 鴨形土器는 天鳥思想에 따르는 天鳥信仰의 뜻을 지니고 있고 鳥形飾의 船形土器는 天鳥船思想에 따르는 天鳥船信仰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伽耶地域에는 神木信仰, 太陽船信仰, 天鳥信仰, 天鳥船信仰 등이 있었고 이것이 合流形成되어 마침내 複合的인 傳統思想과 固有信仰으로 繼承되었다. 그리하여 이들 神木信仰, 太陽船信仰, 天鳥信仰, 天鳥船信仰은 伽耶地域의 金冠과 金銅冠에 실려 具體的으로 表現되었다. 이와같은 複合的인 傳統思想과 固有信仰을 지니고 있는 伽耶系의 金冠과 金銅冠의 造形的인 構造와 樣式, 內容的인 思想과 信仰이 日本에 傳受되어 彼地의 金銅冠의 主流를 이루며 발전하였다.

C. 日本의 金銅冠에 표현된 思想과 信仰

伽耶金冠의 透彫唐草狀인 草花形立華飾과 透彫船形狀인 船形飾으로 裝飾된 造形的인 構造와 樣式에 따르는 金銅冠이 日本에서 調査되고 있다. 곧 透彫唐草狀의 草花形立華飾의 神木信仰과 透彫船形狀인 船形飾의 太陽船信仰의 精神的인 思想과 信仰을 繼承한 日本의 金銅冠이 그 系譜를 이루며 分布되고 있다. 이와같은 類例로는 鴨稻荷山古墳에서 出土된 金銅冠, 井田川茶臼山古墳에서 出土된 金銅冠의 金具片, 鷺ノ湯病院 橫穴에서 出土된 金銅冠의 冠飾金具 등이 있다. 이는 伽耶金冠의 形式的인 構造와 樣式, 內容的인 思想과 信仰을 充分히 繼承한 것이다.

日本 후지노끼(藤ノ木) 古墳에서는 金銅冠이 出土되었다. 1988年 가을에 후지노끼古墳 第3次 調査를 實施하였는데 이 金銅冠은 石棺內 北側의 被葬者의 발치에서 發見된 것이다. 「廣帶二山式冠帶에 鳥形과 劍菱形 등을 裝飾하고 唐草狀으로 透彫한 草花形立飾을 左右山形上에 세웠는데 그 全體에 花瓣形과 鳥形의 瓔珞으로 裝飾되어 마침내 茂盛한 樹木에 새가 앉은 樣相을 보이고 있다」고 報告되어 있다. 이는 一言으로 要約하여 金銅冠의 構造와 樣式을 說明한 것이다. 이 金銅冠의 構造와 樣式은 廣帶二山式冠帶와 草花形瓔珞付立飾으로 大別하여 考察된다.

① 廣帶二山式冠帶는 鴨稻荷山古墳의 廣帶二山式冠과 三味塚古墳의 廣帶二山式冠의 類例와 더불어 日本 獨立的인 形式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廣帶狀冠帶는 그 廣帶形態만은 南露의 노보체르카아스크(Novocherkaask) 出土의 廣帶狀冠帶의 스키타이系에 그 源流를 求하여야 할 것으로 傳高靈 出土의 金冠의 冠帶가 廣幅에 가까운 것이다. 따라서 日本의 廣帶狀冠帶는 北方으로부터 韓半島를 거쳐 日本에 傳播한 것으로 믿어진다.

二山式臺輪 構造는 左右二山으로 兩分되어 山丘가 二山式으로 솟고 그 左右二山上에 立飾이 세워져 마침내 兩分된 左右二山上에 樹木이 茂盛하고 있는 樣相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類例가 高句麗古墳壁畫에 보이니 眞坡里 第1號 古墳의 北壁 壁畫에 三山制가 左右兩側에 配置하고 樹木이 서 있는 二山式이고 眞坡里 第4號 古墳의 東西 兩壁에 蓮池圖가 있어 역시 三山制가 左右兩側에 配置되고 樹木이 茂盛하고 있는 二山式이 보인다. 이와 같은 高句麗古墳壁畫의 二山式 意匠은 日本의 金銅冠 二山式臺輪의 源流라 하겠다. 그리하여 후지노끼古墳 金銅冠의 廣帶二山式臺輪의

左右 山上에 唐草上인 草花形立飾을 세운 것은 앞에 말한 高句麗 古墳壁畫의 左右 二山式 樹林 등의 意匠인 系譜로 推定하여 볼직하다. 이는 天界에 到達하려는 高木 곧 神樹信仰 또는 그 思想의 系統이 繼承된 事實이라 하겠다.

②草花形瓔珞付立飾은 唐草狀의 透彫, 花瓣形과 鳥形の 瓔珞飾, 鳥形과 船形の 裝飾, 劍菱狀의 裝飾 등으로 分解해서 考察된다.

唐草狀의 透彫는 곧 草花形立飾의 幹枝를 唐草狀으로 透彫한 것이다. 이 草花形立飾의 類例도 역시 그 源流는 南露의 알렉산드로폴(Alexandropol)에서 出土된 銀製草花形冠飾과 같은 스키타이系文化에 求해야 할 것이다. 특히 傳高靈 出土의 金冠, 傳慶尙南道 出土의 金銅冠 등의 類例가 있다. 따라서 후지노끼 古墳의 金銅冠의 唐草狀透彫立飾은 그 北方系 곧 伽耶系의 唐草狀透彫草花形立飾의 基本的인 形式系統을 繼承한 것이라 하겠다.

花瓣形과 鳥形の 瓔珞飾은 후지노끼古墳 出土의 金銅冠만의 形式으로서 圓形瓔珞飾을 主流로 하고 있는 것이 一般的인 傾向인데 대하여 特異한 類例라 생각된다. 그러나 唐草狀透彫草花形立飾의 全體에 가득히 瓔珞을 裝飾하는 華麗한 立飾의 意匠은 中央亞細亞의 아프가니스탄의 시바르간의 티야테페(Tillya-tepe)로 불리는 곧 黃金塚에서 出土된 黃金寶冠과 韓國의 羅州 新村里 9號古墳에서 出土된 金銅冠의 系譜일 것으로 推定된다.

鳥形과 船形の 裝飾은 후지노끼古墳 出土의 金銅冠의 獨自인 것이라 하겠는데 鳥形飾 冠의 類例는 新羅의 端鳳塚 出土 金冠이 있고 또 船形飾 冠의 類例는 伽耶의 傳慶尙南道 出土의 金銅冠이 있다. 이어서 日本의 鴨稻荷山古墳에서 出土된 金銅冠, 井田川茶臼山에서 出土된 金銅冠片, 鷲ノ湯病院橫穴古墳에서 出土된 冠飾金具 등으로 系統을 이루고 있다.

그리고 前者 鳥形과 後者 船形이 合쳐져 船形에 鳥形이 첨가되는 類例가 있으니 이를 天鳥船이라 한다. 天鳥思想은 三國志 升辰傳에 「以大鳥羽送四 其意慾使死者飛揚」이라 한 바와 같이 死者의 靈魂을 天界에 運搬하기 위한 天鳥로서 大鳥를 副葬하는데 시작된다. 伽耶에 있어서는 鳥形土器를 副葬하는 風習에로 發展하였다. 또 太陽船思想이 있어서 新羅와 伽耶에서는 死者의 靈魂을 天界에 運搬하기 위하여 船形土器를 副葬하는 風習이 있다. 이 天鳥思想과 太陽船思想이 合流하여 伽耶에서는 鳥形假面을 쓴 船人이 櫓를 짓는 船形土器, 鳥形을 裝飾한 船形土器를 副葬하고 있는데 이는 被葬者의 靈魂을 天界에 運搬하는 天鳥船의 例라 하겠다. 이와 같은 天鳥船은 日本에서는 珍數塚古墳과 鳥船塚古墳 등 裝飾古墳의 壁畫에 太陽船인 天鳥船의 類例가 보인다. 이러한 天鳥船思想이 후지노끼古墳의 金銅冠의 鳥形과 船形の 裝飾으로서 表現된 것이라 하겠다.

劍菱狀飾은 新羅와 伽耶의 耳飾과 垂飾 등에 많이 보이는 類例의 系統이라 하겠다.

앞에 記述한 바와 같이 후지노끼古墳 出土 金銅冠의 構造와 樣式은 그 源流를 멀리는 中央亞細亞의 金製寶冠과 가까이는 韓半島의 金冠, 金銅冠의 系譜를 充實히 繼承하면서 日本의 特異한 樣式을 添加하여 마침내 特殊한 金銅冠이 造成된 것이라 하겠다. 그리하여 形式的으로는 華麗한 寶冠을 이루었고 內容的으로는 當時의 思想과 信仰을 지니며 샤만冠으로서 重要視되었다.

후지노끼古墳 出土 金銅冠의 構造와 樣式은 上述한 바와 같은데 이 金銅冠은 앞의 構造와 樣式에

따라 그 思想과 信仰이 깃들어 있다. ①唐草狀의 草花形立華飾에 瓔珞飾과 劍菱形裝飾을 添加하여 마치 茂盛한 樹木과 같이 立飾하였는데 이는 新羅金冠과 伽耶金冠의 立飾의 神木에 따르는 神木信仰이라 하겠다. 또 ②草花形立華飾에 鳥形飾을 하여 樹枝에 새가 앉은 모습을 한 것은 新羅의 瑞鳳塚金冠의 天鳥 意匠에 따르는 天鳥信仰을 나타낸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③草花形立華飾의 先端에 船形飾을 한 것은 傳慶尙南道 出土의 伽耶金銅冠(小倉蒐集品)의 船形飾의 類例를 繼承한 太陽船信仰으로 보아야 하겠다. 한편, ④草花形立華飾에 船上鳥形飾을 한 것은 日本『古事記』의 天鳥船(天鳥船神)과 珍敷塚古墳, 鳥船塚古墳 등의 天鳥圖등과 더불어 新羅·伽耶地域의 鳥形飾船形土器의 供獻土器를 副葬하는 天鳥船 類例에 따르는 天鳥船信仰을 表現한 것이라 하겠다. 이 후지노끼古墳의 金銅冠은 그 構造와 樣式의 意匠은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神木信仰·天鳥信仰·太陽船信仰·天鳥船信仰 등이 綜合的으로 複合形成된 사만冠이라 하겠다.

以上 記述한 바와 같이 후지노끼古墳의 金銅冠을 造成한 形式的인 構造와 樣式, 그리고 內容의인 思想과 信仰은 그 源流를 神羅와 伽耶에서 求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III. 腰 帶

韓國 古代의 腰帶는 일찌기 先史時代부터 施行되었고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큰 發展을 하였다. 初期鐵器時代의 腰帶로 馬形帶鉤 虎形帶鉤가 永川 漁隱洞遺蹟에서 出土되어 動物形帶鉤로 장식된 腰帶를 使用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三國時代에 이르러서는 多樣하고 華麗한 發展을 하였다.

첫째, 高句麗의 古墳壁畫에 보이는 腰帶는 그 資料上으로 區別되는 例는 絲繩帶, 布帛帶, 皮革帶 등이 보인다. 그리고 또 形態上으로는 絲繩帶, 細幅帶, 廣幅帶 등으로 區分된다.

둘째, 高句麗, 百濟, 新羅, 伽耶 등에는 모두 鈔帶가 이용되고 있었다. 특히 新羅와 伽耶에서 鈔帶가 燦爛한 發展을 하였다.

셋째, 百濟, 新羅, 伽耶 등에서는 鈔帶와 더불어 腰佩를 垂下飾하는 風習이 發展하였다. 특히 新羅의 腰佩는 多種多樣하고 華麗燦爛하게 發展하였다.

여기에서는 여러모로 발전한 腰帶 가운데 特異한 양상으로 나타나 발전하였던 鈔帶와 腰佩를 中心으로 살펴 보기로 한다.

1. 馬形帶鉤와 虎形帶鉤

韓國 古代社會에 動物形裝飾의 帶鉤를 사용한 腰帶가 있어서 注目된다. 永川 漁隱洞遺蹟에서 初期鐵器時代의 靑銅製인 馬形帶鉤와 虎形帶鉤가 出土되었고 또 天安 淸堂洞遺跡에서 原三國時代의 靑銅製 馬形帶鉤가 出土되고 그리고 善山 古墳에서 三國時代의 馬形帶鉤가 出土되었다. 이렇게 初期鐵器時代→原三國時代→三國時代에 이르면서 韓國의 古代社會에서 動物形帶鉤가

利用되고 있다. 이들 動物形帶鉤가 造成된 形態, 利用된 方法, 表現된 思想, 그 源流와 系譜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 보기로 한다.

(1) 造成된 形態 : 이 動物形帶鉤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時代的으로 初期鐵器時代 原三國時代 三國時代에 걸쳐 그 여러모로 移行發展하였다. 이에 모두 解說하기는 어렵고 漁隱洞 出土品을 中心으로 말하고자 한다.

馬形 또는 虎形의 板狀 動物形의 胸前으로부터 突出한 棒形의 先端에 鉤를 形成하고 이 鉤部에 正圓形 또는 橢圓形의 環을 걸도록 되어 있어 그 帶鉤의 造成이 注目된다. 首部, 胴體, 尾部, 脚部가 明確하며 그리고 이 帶鉤의 構造에 따라 施文되어 있다.

(2) 利用한 方法 : 帶鉤의 構造로 보아 아래에 통좁은 바지(袴)를 입고 위에는 긴 저고리(襦)를 입은 細袴長襦의 衣服의 긴 저고리 곁에 매는 皮革帶 또는 布帶의 帶鉤로서 窄袖肢體形의 衣服에 매는 곧 騎馬人의 帶鉤로 推定된다. 그리하여 이 動物形帶鉤는 騎馬生活을 하는 窄袖肢體形의 衣服에 着用하던 韓國 古代人의 金屬製帶鉤임을 알 수 있다.

(3) 表現된 思想 : 馬形帶鉤의 말(馬形)과 虎形帶鉤의 호랑이(虎形)는 當時 韓國 古代社會에 있어서 民族과의 密接한 關係에 있는 動物로 或 말(馬) Totemism 또 호랑이(虎) Totemism 으로서도 重要視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말해서 몸에 지니는 服飾物로서의 呪術的인 性格을 보이고 있었을 것이다.

(4) 源流와 系譜 : 馬形帶鉤인 말(馬)와 虎形帶의 호랑이(虎)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韓國 古代社會에 存在하고 있었던 當時人들의 思想的으로 또는 信仰的으로도 重要視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 動物은 韓國 特有의 動物인 同時에 역시 시베리아 北方系의 動物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金屬製의 動物形帶鉤는 시베리아의 스키타이 文化系로 北方文化에 連結되는 것이니 그 源流를 시베리아 北方文化에서 求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系統이 전래되어 韓半島의 古代社會의 古式帶鉤로서 發展하였다. 그리고 이 動物形帶鉤는 다시 日本에 傳授되어 岡山縣 榊山古墳에서 出土된 靑銅製 馬形帶鉤와 같은 類例에로 傳播되었다. 마침내 시베리아의 스키타이 文化系로서 韓半島를 거쳐 日本에로 傳播하는 系譜를 形成하고 있다.

2. 鍔帶와 腰佩

鍔帶는 革帶 또는 布帶에 垂飾板이 달린 과판(鍔板 : 과판에는 혁대 또는 포대에 부착하였던 못이 있는 채 출토됨)을 부착하고, 그 한쪽 끝에는 鉸具를 달고 또 한쪽 끝에는 帶先金具를 달아 허리에 띠었다. 腰佩는 상기 鍔帶에 각종 垂飾物을 패식한 것이다. 이와 같은 과대와 요패는 고구려·백제·신라·가야에 모두 있었고, 이에 대한 기록과 출토된 유물이 허다하여 삼국 시대에 화려 찬란한 과대와 요패의 착용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 고구려의 과대와 요패

鍔 帶 : 상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에는 銀帶와 金釦革帶가 있었는데, 그 자세한 모습은 모

르겠으나 이것이 혹 鈎帶인지도 모르겠다. 문헌을 통하여 고구려에서 과대를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고구려 지역의 고분에서 과대 殘片이 출토되고 있어 고구려의 과대 모습의 일부를 알 수 있다. 湖南里 金絲塚과 高山里 第9號 古墳·晚達山麓古墳 등에서는 透彫 鈎帶 殘片이 출토되었다. 그 중에도 고산리 제9호 고분에서는 心葉形과 鈎에 圓環을 垂下한 鈎帶金具가 출토되어 고구려의 과대 모습이 남부지방의 백제·신라·가야 등지의 과대 모습과 유사한 발달을 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腰 佩 : 상술한 바와 같은 과대에 佩飾하던 요패가 아직까지는 유물로 발견된 사실은 없다. 그래서 고구려의 요패가 어떠한 형태이며, 어떻게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고구려의 요패에 대한 문헌 기록이 있어 그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翰苑』 高句麗條에,

칼(刀)과 𠵼돌(礪)을 허리에 찻는데, 이는 벼슬의 品等과 威嚴을 보이고 金羽로써 貴賤을 명시한 것이다.

佩刀礪 而見等威 金羽以明貴賤

고 하였다. 이에 대하여 同書 梁元帝 職貢圖에서는 註를 달았으며,

귀에 귀걸이(金環)를 달고, 상의는 긴 저고리(衫)를 입고, 하의는 긴 바지(長袴)를 입었으며, 허리에 銀帶를 띠고 왼편에는 𠵼돌(礪)을 달고, 오른편에는 五刀子를 달았다.

穿耳以金環 上衣曰衫 下曰長袴 腰有銀帶 左佩礪 而右佩

고 하였다. ㉠銀帶는 그 형태를 알 수 없으나, 이는 곧 銀製 鈎帶로 추측된다. ㉡𠵼돌(礪)과 五刀子は 요패로서, 신라와 가야의 고분에서는 패식용 𠵼돌(礪; 砥石)이 출토되고 있고, 또 刀子が 출토되는 예가 많으며 한 개의 鞞身에 여러 개의 子刀를 꽂은 母子刀가 출토되어 이것이 곧 𠵼돌과 같이 佩用하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보면 고구려의 요패의 풍습과 신라와 가야의 요패의 풍습은 일련의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2) 백제의 과대와 요패

앞에서 고구려의 과대와 요패에 대하여 기술한 바 있다. 그리고 문헌을 통하여 고구려에 과대와 요패의 풍습이 있었음을 말한 바 있고, 또 고분에서 출토된 과대와 요패의 유물을 통하여 고구려에 이 과대와 요패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역시 백제의 과대와 요패의 풍습이 있었음을 말하였다. 따라서, 백제에 있어서도 고구려와 같이 이 과대와 요패의 풍습이 있었다. 문헌에는 석연치 않으나 백제의 古都 公州에서 이들 과대와 요패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어, 역시 백제에도 과대와 요패의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공주 宋山里 제1호 고분에서 銀製 透彫 鈎帶의 鈎板이 출토되어 백제에 전형적인 과대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시 송산리 제2호 고분에서 鬼面을 打出彫刻한 鈎板과 單册形 垂佩飾 과편이 출토되어 백제에 과대와 요패의 풍습이 있었음을 잘 알 수 있다. 또한 공주 武寧王陵에서 王이 띤 銀製 鈎帶와 金銀製 腰佩가 출토되어 백제 과대와

요패가 화려하고 그 極致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백제의 과대와 요패의 풍습은 상술한 바와 같거니와 특히 송산리 제1호 고분 출토의 透彫로 된 鍔板과, 송산리 제2호 고분 출토의 單册形 요패는 신라와 가야 등지에서 출토되는 유물과 양식을 같이하고 있다. 또 무녕왕릉에서 출토된 과대의 과판이, 타원형으로 된 大鍔과 小鍔가 交互로 일련하는 양식은 신라와 가야의 것과 다르나, 그 鉸具와 帶先金具의 양식과 요패의 大小 耳杯形鍔을 연결하여 단책형을 하고 있는 모습은 모두 신라·가야의 과대와 요패의 양식과 공통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송산리 제2호 고분 출토의 귀면 타출 조각을 한 鍔板은 고식을 보이는 것이고, 무녕왕릉 출토 과대와 요패같이 발달된 새로운 형태도 볼 수 있다. 그리하여 백제의 과대와 요패 착용 풍습은 신라와 가야와는 일련의 관계가 있으며, 백제는 과대와 요패의 선진 지역으로도 보인다.

(3) 신라와 가야의 과대와 요패

가야의 과대와 요패에 대하여는 문헌에 보이는 바가 없고, 신라의 과대와 요패는 문헌에 기록된 바 있어 그 문헌에 나타난 신라의 과대와 요패의 일부를 짐작할 수 있다. 古新羅期의 과대로 『三國遺事』에 기록된 天賜玉帶가 있어서 金과 玉으로 만든 과대로 설명되어 있으나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 신라 통일기의 과대로 『三國史記』樂條에 舞人이 鍍金鍔腰帶를 착용하고, 歌人이 과대를 착용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三國史記』色服條에 의하면 白玉·鍮·鐵·銅 등을 재료로 하여 만든 각종 과대를 착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렇게 문헌을 통하여 볼 때 고신라에서 통일 신라에 이르는 동안 대체로 과대를 착용하는 풍습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가야의 과대는 문헌 기록이 없어 자세한 것을 알 수 없다. 신라와 가야의 과대 착용 풍습은 상술한 바와 같은 기록과 또 신라 지역과 가야 지역의 고분에서 출토되는 부장품의 遺例로 보아 남녀의 구별 없이 군왕·왕실로부터 귀족·관원·평민, 그리고 歌舞人에 이르기까지 널리 보급되어 있었다. 그리고 당시인들의 신분에 따라 금·은·금동·동·철 등의 재료가 구분되고, 鍔板·鉸具·帶先金具 등의 양식이 시대에 따라, 또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달라지고 있지만, 대체로 透彫鍔板이 그 주류가 되고 있어서 고구려와 백제와도 같은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과대와 요패의 고분 출토 상태를 보면 과대만이 출토되고 요패는 출토되지 않는 예가 있다. 그래서 과대와 요패는 서로 관계가 없는 각각 별개의 것으로 생각되기도 하나, 이들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로서 과대에 요패가 따르게 마련이다. 이들 신라와 가야의 과대와 요패의 발달 모습은 다음과 같다.

㉠과대와 요패의 始源型

허리띠(腰帶)에 금속을 사용한 것은 일찍이 永川 漁隱洞의 馬形 帶鉤와 虎形 帶鉤의 선사 시대의 유례가 있지만, 전형적인 鍔帶 또는 腰佩의 형태를 갖추기는 훨씬 뒤늦게로서, 목걸이(頸飾)와 귀걸이(耳飾) 등 장신구보다 뒤늦게 발달하였다. 그러나, 과대와 요패의 始源型은 상당히 일찍부터라고 생각된다.

경주 황남동 제109호 고분 제1곽에서 心葉形環付鍔帶金具 4개와 이 밖에 帶先金具·鉸具·垂飾片 등이 출토되었다. 그리고 필자가 발굴 조사한 皇南洞 味鄒王陵 前地域 D 지구 제1호 고분

제1주곽의 피장자가 누워 있는 허리 부분에서 銀製鉸具와 銀製心葉形環付鈔帶金具가 출토되고, 같은 부분에서 암흑색의 유기 물질이 부패된 것이 보이고 있어 革帶 또는 布帶에 심엽형 환부과대 금구를 부착하고 교구를 달아 허리에 띠게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과대 아래로는 허리로부터 하체로 길게 늘어진 암흑색 유기 물질의 부패된 부분을 볼 수 있었고, 이 D 지구 제1호 고분 제1주곽에는 길게 垂下된 梯形鐵板이 남아 있어, 이와 같은 흔적과 유물이 곧 과대의 고리(環)에 매달았던 腰佩로 추정되는데, 처음에는 요패도 유기 물질로 된 끈으로 매달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상 기술한 바와 같이 처음에는 가죽띠(革帶)·천띠(布帶)·비단띠(錦帶) 등에 금속제의 環付心葉形鈔板을 장식하고 그 고리에 유기 물질 또는 유기 물질과 금속을 혼용한 요패를 달아매는 형식의 과대와 요패가 있었다. 이와 같은 古式의 과대와 요패의 양식은 뒤에 발전된 과대와 요패에 앞서는 始源型的인 始源樣式이라 하겠다.

㉠과대와 요패의 전형적 양식의 성립

전형적 양식의 성립 : 상술한 바와 같은 始源型에서 출발하여 점차 체제를 갖추어 은·금동·금 등의 재료를 사용하고 또 玉을 이용하여 금속 중심으로 될 鈔帶와 腰佩가 제작되어, 이른바 전형적인 양식을 갖추기에 이르렀다. 이 전형적인 양식에 속하는 과대와 요패는 透彫唐草文四角板에 透彫唐草文心葉形垂飾을 단 여러 개의 鈔板을 비단띠 또는 가죽띠에 못을 박아 이어달고 양 끝에는 鉸具와 帶先金具를 달아서 허리에 띠게 되었다. 그리고 舟形板(耳杯形板)과 方形板을 交互로 연결한 끝에 尾飾을 달아맨 單冊形繫飾을 한 개 내지는 몇 개를 매다는 전형적인 양식을 갖춘 요패가 있고, 또 요패에 숫돌(礪)과 칼(刀子)을 차는 관습도 있었다. 이와 같은 전형적 과대와 요패는 서기 4세기 후반경부터 신라와 가야에 성행하였다. 그 유례는 고분 출토품에 수많은 유품이 있어 이루 다 소개할 수 없다.

전형적 양식의 과대와 요패의 유례 : 전형적인 양식을 갖춘 과대와 요패의 유품으로 대표적인 것을 소개한다면 慶山郡 慈仁面 北四洞 제1호 고분에서 출토된 고식의 과대와 요패가 있고, 또 梁山 夫婦塚에서 출토된 부부의 유품 두 벌이 있다. 전자는 과판의 투조 양식과 기타 조성 기법으로 보아 5세기를 전후한 유품으로 추정되는 古式型이고, 후자는 6세기를 전후한 유품으로 추정되는 뒤에까지 계속되는 整齊型이라 하겠다. 그런데 양자 모두 環付心葉形金具가 여러 개 출토되었는데, 이는 환부 심엽형 금구를 부착한 별개의 요대가 있어 요패의 繫飾을 달아매게 하였던 모양이다.

이와 같은 전형적 양식에 속하는 것은 後期에 계속되며 신라와 가야지역에서 많은 유례가 출토되고 있어서 이에 다 例擧할 수 없다. 특히 양산 부부총 출토품과 같이 鈔板의 투조 양식을 한 것이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는데, 경주 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된 예와 大邱 지방의 고분에서 출토된 예가 많다. 단책형 계식의 요패가 달린 과대로서는 경주 壺杆塚 출토 신라 유품이 있고, 또 대구 지방인 達西 51호 고분·達西 55호 고분·義城 塔里 제2주곽 등의 가야 유품이 있음을 알 수 있다.

礪佩 風習 : 신라와 가야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鈎帶에 單冊形腰佩를 달고 또 透彫筐形飾 礪腰佩를 곁들여서 단 관습이 있었다. 곧 신라의 예로는 경주 皇吾洞 제4호 고분·皇吾洞 제33호 고분·路西洞 제138호 고분의 출토 유례를 볼 수 있고, 가야의 예로는 達西 제59호 고분의 출토 유례가 있으며, 스키하라(杉原) 씨의 수집품 중에도 투조 광형 식려 요패 한 개가 있고, 飾履塚과 皇南洞 제110호 고분의 경우는 장식이 없이 끈을 꿰는 구멍을 뚫은 숫돌(礪)만이 출토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요패의 숫돌로 추정된다.

그리하여 숫돌을 요패로 사용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숫돌만을 차는 實用의 용도 목적을 달성하였고, 뒤에 귀금속제의 장식을 가하여 전형적인 透彫筐形飾礪腰佩를 착용하기에 이르렀으며, 다시 木製 모양의 숫돌과 금속 장식을 한 투조 광형 식려 요패를 착용하였다(현재 고분에서 목재 숫돌은 썩어 없어지고 금속 장식만 출토되는 예가 있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숫돌을 착용하는 관습이 실용적인 면에서 장식 목적으로 변천하여 간 모습을 짐작하게 된다. 이 숫돌과 刀子를 패용하는 습속은 중국에도 있었으니, 『禮記』의 內則에,

아들이 부모를 섬기는 것으로 칼(刀)과 숫돌(礪)을 패용하였다. 子婦가 시부모를 섬기는 것을 친부모와 같이 하기 위하여 칼과 숫돌을 패용하였다.

子事父母 佩用左佩 舛脫刀礪小觸金燧……婦事舅姑 如事父母左佩 舛脫刀礪小觸金燧

고 하였다. 이처럼 중국에 있어서는 아들과 며느리가 부모 또는 시부모에게 효도하기 위하여 칼과 숫돌을 패용하였다고 한다. 그리하여 신라와 가야의 칼과 숫돌을 패용하는 풍습은 중국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물론 중국의 영향도 있지만 또한 중국과 다른 점도 있었다. 곧 상술한 바 있듯이, 고구려의 칼과 숫돌을 패용하는 풍습은 權威와 威風을 보이기 위한 것(佩刀礪而見等威)이라 하였다. 이와 같은 우리 나라의 칼과 숫돌을 몸에 차는 풍습은 선사 시대부터 내려오는 風習으로 추정된다. 곧 先史人들이 실용적인 용구로서도 패용하였을 것이고, 또 권위를 보이는 한편 呪術的인 뜻도 지니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후대에 이르러서는 중국의 그것과 관계를 맺으며 효도의 뜻으로 칼과 숫돌을 패용하는 풍습이 성행하였다.

㉔과대와 요패의 발전적 양식의 성행

과대와 요패의 발전형 : 과대 鈎板의 透彫手法는 점차 다양하고 가일층 복잡하며 정교해져 가는 발전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腰佩에 있어서도 그 佩飾의 수가 증가되어 多種多樣的 발전상을 보였다.

이와 같이 신라와 가야의 과대와 이에 따르는 요패가 큰 발전을 하여 화려 찬란한 발전형을 보인 유품이 신라 지역인 경주의 高塚과 가야 지역인 昌寧 校洞의 고총에서 출토되고 있어 다음과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①6세기 반경까지 그 국권을 유지한 非火伽耶(지금의 昌寧)와 大伽耶(지금의 高靈)에서는 경주 지방을 중심으로 한 신라와 대등한 문화 수준에서 다종다양하고 화려 찬란한 발전형의 과대와

요패가 盛用되고 있었다. ㉔창녕 지방에 근거를 둔 비화가야의 과대와 요패는 신라의 과대 및 요패와 공통적인 양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㉕그리고 그 佩飾으로 보아 과대와 요패를 착용한 계층은 王室과 貴族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비화가야 고지인 창녕 교동 제12호 고분의 腰佩는 單冊形佩飾(大形)·單脚形佩飾·透彫圭形佩飾·魚形佩飾·兩脚形佩飾 등이 한 벌로 되어 있다. 또 창녕 교동 제89호 고분 출토 요패도 제12호 고분 출토품과 같은 종류와 양식의 것이며, 특히 前者에는 圭形佩飾과 兩脚形佩飾이 있으나 후자에는 빠져 있고, 후자에는 唐草文透彫를 한 礪佩飾이 있는데 전자에는 빠져 있다. 이 여패식은 唐草文透彫頭飾을 한 木製礪佩飾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실용적인 목적이라기보다는 관습에 의한 장식적인 목적이 강한 것이라 하겠다.

신라의 경주에서 기양에 발굴 조사된 金鈴塚의 금제 과대와 요패, 金冠塚의 금제 과대와 요패 등과 또 瑞鳳塚의 금제 과대와 요패가 있어 그 장엄하고 찬란한 유품에 감탄한 바 있다. 그런데 최근에 발굴 조사된 天馬塚·황남동 98호 고분의 北墳과 남분에서 금관총과 서봉총에서 출토된 유품 계열의 금제 과대와 요패가 출토되어 주목되고 있다.

금관총 출토 유품은 單冊形佩飾·杏葉形佩飾·金製曲玉佩飾·翡翠曲玉佩飾·透彫圭形佩飾·족집게 모양 佩飾·兩脚形佩飾·魚形佩飾·茄子形佩飾·透彫筐形頭飾礪佩飾·印籠形佩飾 등의 각종 패식류를 垂繫 裝飾한 것이다. 서봉총 출토 금제 과대 유품도 금관총 출토 유품과 대체로 같은 양식과 같은 종류의 鈎板과 腰佩로 구성된 것이다.

그래서 발굴 조사된 天馬塚(155호 고분)에서 출토된 金製鈎帶와 이에 따르는 요패는 역시 금관총이나 서봉총의 유품과 같은 계열로서, 각종 요패의 尾飾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瓔珞飾의 金鎖 형식의 透彫筐形裝飾礪佩飾 1개를 비롯하여 耳杯形連繫 형식의 끝에 단 尾飾으로, 단책형 패식 2개(1개는 없어졌음), 琥珀色石 曲玉·비취 곡옥·圓筒形 金帽(下部는 없어졌음)·단책형 패식·瑠璃玉·족집게 모양 패식(拔毛形 佩飾)·透彫柄刀子·透彫藥籠·魚形·장대한 단책형 패식 등 모두 13개의 腰佩로 구성되어 있다.

皇南洞 제98호 고분 北墳에서도 금제 과대와 요패가 출토되었다. 唐草文을 투조하고 瓔珞을 단 鈎板 28매와 鉸具와 帶先金具로 구성된 鈎帶와 13개의 패식으로 이루어진 腰佩이다. 요패는 작은 方形金板 사이에 끼어 耳杯形金板(舟形金板)을 연결시켜 만든 垂下飾 끝에 각각 尾飾을 매달았다. 그 略報告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출토 상태가 양호하여 배치 순서와 몸의 前後面에 있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낼 수 있었다. 腰佩는 몸 뒤편 중앙에는 달지 않고 양쪽 옆 허리에 각각 3개씩이 뒤로 돌아가고, 몸 앞에 7개를 달았다. 鉸具를 중심으로 하여 수식으로 구별하면, 왼쪽으로는 金製曲玉·長方形金板(單冊形佩飾)·魚形·金粧刀·長方形 金板·透彫刀子柄形金板(兩脚形佩飾)이며, 金粧刀 이하 3개가 뒤쪽에 단 것이고, 오른쪽으로는 금제 곡옥·장방형 금판·大形腰佩(大形單冊形 腰佩)·장방형 금판·金針形의 순서이며, 대형 요패 다음의 3개가 몸 뒤쪽에 단 것이다. 이

외에 왼쪽에 銀粧刀를 수식한 요패 하나가 있었으나 부식되어 형태를 남기지 못했다. 대형 요패가 오른쪽에 착장된 것이 특이하다.

또 황남동 제98호 고분 남분에서도 금계 과대와 요패가 출토되었다. 북분 및 천마총 출토 유품의 것과 대략 같은 양식이다. 鈎帶는 당초문 투조 과관 34매와 鉸具 2개와 帶先金具 1개로 구성되었고, 요패는 方形金板과 橢圓形金板을 연결시킨 垂飾 끝에 尾飾을 달아매는 방식이다. 그 모양은 다른 것과 같으나, 그 종류에 있어서는 피장자의 좌측으로부터 우측으로 돌아가며 魚形·金帽母子曲玉·金帽翡翠曲玉, 또 금모 비취 곡옥·透彫兩脚形·족집게 모양 등과 大形腰佩(大形單册形腰佩)로 구성되었다.

과대와 요패의 발전형이 지닌 특색: 이상 기술한 金鈴塚·金冠塚·瑞鳳塚·天馬塚·皇南洞 제98호 고분 남분과 북분에서 출토된 과대와 요패의 유품은 고신라의 문화가 절정에 달하였던 시대의 신라의 왕실과 귀족의 과대이다. 그런데 이는 왕실·귀족들이 생시에 禮服時의 복식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도 추정되나, 한편 신라의 왕실·귀족의 禮裝에 따르는 복식 부장품으로 추정되기도 한다. 그리고 천마총의 被葬者는 남자이고 황남동 제98호 고분 북분의 피장자는 여자로 추정되고 있어, 고신라 당시의 복식에 있어서 금관·목걸이·귀걸이·팔찌·반지·과대와 요패 등의 장신구류는 그 종류와 양식에 있어 남자와 여자의 구별없이 서로 같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전술한 바와 같이 『禮記』에, “아들이 부모를 섬기고 며느리가 시부모를 섬기기 위하여 장도(刀子)와 숫돌(礪石)을 패용하였다”고 기록된 것으로 보아도 남녀 구별이 없었던 모양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나라 복식이上古로 올라갈수록, 더우기 고유복식에 있어서는 남녀가 서로 구별없이 같았던 모양이다. 이러한 점은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들 과대에 따르는 요패는 그 종류가 증가되어 가고 있다. 상술한 여러 요패에 보이는 尾飾을 종합하여 보면, 금·비취·金帽의 曲玉·透彫圭形·透彫兩脚形·가지모양 과리구(茄子形玻璃球)·印籠形·魚形·족집게 모양(拔毛形)·針筒·투조 광형식 숫돌(透彫筐形飾礪)·금과 은으로 만든 粧刀 등을 달아서 아주 다종다양하였다. 이러한 腰佩 風習은 중국에도 있었으니, 『唐書』 車服志에 의하면, 刀子·契苾·眞嚙厥·針筒·火石袋(佩貼鞞七事 七事爲佩刀子·礪石·契苾·眞嚙厥·針筒·火石袋) 등의 패식이 있었다고 한다. 이에 고신라의 요패 풍습과 唐代의 요패 풍습과의 관련 여부가 주목된다.

그러나, 고신라의 요패에 있어서는 그것이 요대를 장식하고 몸을 화려하게 장식하는 뜻이 있었겠지만, 족집게·針筒·숫돌(礪石)·粧刀 등은 일상생활에서 몸에 지녀야 할 용품으로서, 아마도 그것은 실용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점차 假器的인 장식 목적으로 이용되어 요패어로 전환한 예라고도 할 수 있다. 한편 曲玉과 魚形 등의 尾飾 方法은 신라인들의 신앙 사상에서 온 呪術的인 목적을 지니고 있는 것이라고 추정되기도 한다.

IV. 履 靴

‘신’은 靴와 履를 생각할 수 있다. 靴는 鞣라고도 하니, 곧 防寒·防浸에 적당한 武風의인 北方族系의 것이라 하겠다. 그리고 履는 踏·鞞·躡·躡·鞋 등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文秩의인 南方族系라 할 것이다.

靴는 그 모습이 운두가 높은 것으로서, 조선 시대의 水鞋子, 곧 木靴와 같은 모습이다. 이 靴에 해당하는 ‘신’은 고구려·백제·신라 등 삼국에 모두 있었던 모양이다.

履는 靴의 長靴靴에 대한 短靴履, 곧 운두가 낮은 것이다. 이 履에 속하는 ‘신’도 고구려·백제·신라·가야 등에 모두 존재하였다. 이들 履에는 가죽(皮革)을 재료로 한 革履가 있고, 草를 재료로 한 葦履와 草履가 있다. 또 麻를 재료한 麻履, 실을 재료로 한 絲履, 비단을 재료로 한 羅履 등이 있었다. 이들 履도 고구려·백제·신라·가야에 모두 존재하였고 같이 발전하였다.

이들 履와 靴 가운데 가장 유물자료가 많이 남아 있고 화려한 발전을 한 金銅履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金銅履

金銅履는 그 재료가 금속이라는 데 특수성이 있으나, 그 모양은 상술한 短靴形의 ‘신’임을 알 수 있다. 고구려에는 이 금동리의 類例를 볼 수 없고, 백제·신라·가야 등지에는 그 출토 유품이 많다.

A. 백제의 금동리

백제의 金銅履는 전라남도 潘南面 新村里 제19호 고분(甕棺墓)에서 출토된 것으로, 斜格子 花文으로 장식하고 신창에 못을 박아 스파이크 형식으로 만들어진 금동리가 있다.

그리고 공주 宋山里 武寧王陵에서 출토된 것으로 화려한 忍唐草文을 투조 장식하고 역시 신창에 못을 박아 스파이크 형식을 한 王의 金銅履와 왕비의 金銅履가 있다

이들 금동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고찰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백제왕이 烏革履와 烏韋履를 신었다 하니, 이들 오혁리와 오위리는 생시에 신었던 실용품이고, 금동리는 禮裝을 위하여 만들어진 假器의인 것이라 하겠다. 물론 금동리는 그 재료가 금속이고 전장이 35cm나 되는 큰 신이라는 데서 실용품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그 모양에 있어서는 당시 실용품인 短靴形의 신을 그대로 寫實한 것이고, 또한 못을 박아 스파이크 형식을 취한 것도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고구려 三室塚 札甲 武人像의 스파이크 형식의 ‘신’과 관련되는 것으로, 당시 고구려와 백제와 신라의 삼국 사회에 이와 같은 실용품인 신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왕과 왕비가 같은 양식의 신을 신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녀가 같은 모습의 신을 신었던 것이며, 이는 곧 후대인 조선 시대의 남자의 太史鞋와 여자의 唐鞋가 대체로 같은 모양을 하고 있음과

같다.

B. 신라와 가야의 금동리

신라의 金銅履로는 金鈴塚의 금동리, 금관총의 금동리(2개 종류), 天馬塚의 금동리, 황남동 제98호 고분의 북분 출토 금동리와 남분 출토 금동리, 飾履塚의 금동리 등이 있다. 이들 금동리는 모두 그 운두와 신바닥에 瓔珞을 달았고, 또 천마총 출토 금동리는 못을 박아 스파이크 형식을 하였으며, 금관총 출토 금동리와 천마총 및 제98호 고분 북분과 남분에서 출토된 금동리는 모두 T字形의 투조문으로 장식하였고 특히 식리총 출토 금동리는 龜甲文과 火踏文 등으로 화려 찬란하게 장식하여 주목되고 있다. 가야의 金銅履로는 大邱內唐洞 제55호 고분·梁山 夫婦塚·昌寧 校洞 古墳·玄風 고분에서 출토된 금동리가 있다. 이 가야 지역의 금동리도 역시 백제와 신라의 그것과 같다. 가야 지역의 금동리도 금동판으로 제작되었는데, ‘신’의 운두와 바닥에 문양을 모조하고 瓔珞을 달았다.

이상 기술한 백제·신라·가야 등 각 지역에서 출토된 금동리는 다음과 같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운두와 신바닥 등에 화려한 문양으로 장식하고 또 瓔珞으로 장식하였으며, 어떤 것은 신바닥에 못을 박아 스파이크 형식을 취하고, 또 30cm 이상에 달하는 거대한 ‘신’이라는 데서 이는 부장품 전용으로 만들어진 신이라고 추정되어 왔고, 필자 또한 이들 금동리 가운데는 부장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 있음을 추정하는 바이다.

둘째, 신코가 솟았고 신 앞바닥이 들려 있으며, 신의 深度와 운두의 높이가 무리가 없고, 신 뒤꿈치가 각(角度)진 것과 둥글게 처리된 것의 두 종류가 있는데, 이는 당시 혁리(革履)와 초리(草履) 등의 모습과 똑같은 것으로, 백제·신라·가야의 전형적인 신이라 하겠다. 이들 금동리가 假器의인 禮裝을 위한 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生時에 신었던 신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진 것임에 틀림없다.

셋째, 왕실·귀족의 고분에서 출토된 피장자의 복식 양상을 보면, 머리에 금관을 쓰고 귀에 귀걸이, 목에 목걸이, 팔에 팔찌, 손가락에 반지를 끼고, 허리에 鈎帶와 腰佩를 차며, 의복에는 금·은·옥으로 장식하며, 발에는 금동리는 신고 있는 안장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화려 찬란한 복식이 모두 葬送을 위하여 만들어진 부장품이라고만 단정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와 같은 왕실과 귀족의 복식은 당시 사회의 최고 상위에 있는 권위와 위풍을 보이기 위한 복식으로, 그것은 당시의 예복이라고 생각되며, 왕실·귀족들의 禮服에 상술한 金銅履를 신었다고 할 수 있겠다.

C. 飾履塚의 金銅履

飾履塚은 慶尙北道 慶州市 路東洞에 소재하는 고분인데, 1924년에 발굴 조사되었다. 이 發掘調査에 의하여 木棺內 西端에서 金銅飾履가 출토되었다. 이 金銅飾履는 ‘金銅珍禽怪獸文飾履’라 명칭할 만큼 화려한 문양을 施文 장식한 飾履를 출토하여 墓號를 또한 ‘飾履塚’이라 하였다.

金銅履는 파손이 있으나, 대체로 원형의 復元이 가능하다. 그 實測値는 全長 32.7cm, 最大幅 10.7cm, 踵幅 8.5cm, 高 9.7cm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구조는 金銅枚 3枚로 이루어졌는데, 신 바닥에 左右 각각 1매씩의 側板을 대어 신운두를 구성하였다. 특히 주목되는 것은 신 바닥 板과 신운두 板에는 화려하고 정교한 鑄出文으로 裝飾되어 있다.

신바닥 모양은 外周部와 內面部로 구분된다. 外周部는 複帶의 連珠文과 紐帶에 蓮瓣文을 배치한 안에 火焰文帶를 들렀다. 그리고 內面部는 연주문의 複帶에 의하여 龜甲文을 구획하고, 중앙 完形의 龜甲文 1列과 左右 半形의 龜甲文列에 각각 祥鳥瑞獸를 배치하였다. 곧 중앙의 龜甲文列에는 對向雙鳥와 鬼神像을 交互로 배치하고, 좌우 龜甲文列에는 龍, 有翼怪獸·人面鳥身 등을 대칭적인 배치를 하였다. 그리고 兩側板 곧 신운두의 문양도 전자와 대체로 같다. 역시 外周部와 內面部로 구분된다. 外周部는 紐文과 連珠文과의 複帶·紐文의 單帶로 돌리고, 그 안에 火焰文帶를 들렀다. 內面部도 역시 연주문의 複帶로 龜甲文을 구획하였다. 중앙 完形龜甲文의 일 열에는 人面鳥身·怪獸·奇鳥·捻體龍·有翼怪獸·鳳凰·獸頭鳥身 등이 배치되었다. 또 左右 半形龜甲文의 2열에는 奇禽·怪獸·鬼神像 등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신 뒤꿈치 부분에는 용문이 보인다. 이들 동물문은 吉祥動物로 그 동물의 사상적인 배경은 종합적인 내용을 지니고 있어서 傳統的인 것 中國的인 것 西域的인 것으로 구분된다.

V. 結 論

以上은 韓國 古代社會의 金冠, 鈿帶와 腰佩, 金銅履를 中心으로 技術하여 왔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이들 金冠, 鈿帶와 腰佩, 金銅履 등 裝身具類는 傳統的인 것에 속하는 것으로 韓國의 固有文化의 基本的인 흐름이 보인다. 그리하여 이들 古代裝身具를 中心으로 한 服飾文化는 다음과 같은 特徵과 性格을 지니고 있다.

첫째, 이들 傳統的인 裝身具는 그 構造와 樣式的인 面으로서의 形式上으로 시베리아·中央아시아 등 北方文化에 連結되고 또 思想과 信仰的인 面으로서의 內容上으로도 역시 시베리아·中央아시아 등의 北方文化에 關聯되고 있다. 그리하여 北方文化에 源流하는 基本 바탕에 韓族의인 文化要素와 佛教的인 文化要素가 加添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이들 裝身具가 지니고 있는 思想과 信仰은 대체로 不老長生, 希貴求福, 繼世思想을 中心으로 하고 있고 이는 民族的인 思想으로서 固有的인 信仰으로서 韓國의 基層文化를 形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金冠, 鈿帶와 腰佩, 金銅履 등 裝身具의 服飾文化가 北方系文化에 그 基盤을 두고 韓族의이고 佛教的인 文化要素가 加添되었음에도 韓半島의 南部地域에 발달하고 특히 韓半島의 東南隅의 新羅에서 燦爛한 發展을 하였음에 注目되어야 하겠다.

이와같이 新羅는 앞에 記述하여 온 裝身具類는 勿論, 이 밖에 耳飾, 頸胸飾, 腕釧, 指環,

飾玉類 등의 裝身具가 極致를 이루었고 더구나 鑄造鍛鍊, 毛彫透刻, 鑲金嵌玉 등 工藝術이 最高度의 發展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하여 이에 ①지금까지 新羅가 三國中 가장 後進地域으로 보아 왔던 것에 대하여 새로운 歷史觀을 定立하여야 하겠고 ②新羅가 三國統一을 完遂한 것이 花郎道의 精神力과 戰爭의 軍事力에 의한 것이라는 생각을 넘어서 經濟的인 富力과 文化的인 優秀性이 있었음에 대한 새로운 歷史觀을 樹立하는데 細心되어야 하겠음을 알 수 있다.